www.arko.or.kr

문학의 대지, 그 경계를 넘고 허물며

- 문학 작가를 위한 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활용 워크숍



• 주최 /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일시 : 2012. 12. 13(목) 14:00 ~ 18: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워크숍 개요

1. 행사명 : 문학의 대지, 그 경계를 넘고 허물며
   – 문학분야 신진 작가를 위한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활용 워크숍
2. 주최/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일시 : 2012년 12월 13일(목) 14:00 ~ 18:00
4.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실
5. 워크숍 일정
   ◦ 모더레이터 : 이선우(문학평론가)

시간	주제	페이지
(1부) 14:00~15:20	1. 발제① '먼 곳'의 문학적 가치_작가 리지던스 프로그램 체험기 ㅇ 김형수(소설가) 2. 발제② : 어떻게 세계문학과 만날 것인가_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만남을 사유하는 일 ㅇ 고봉준(문학평론가) 3. 발제①② 지정토론 ㅇ 이소연 (문학평론가) ㅇ 조재룡 (문학평론가)	3 9 13 15
15:20~15:30	휴식 (Coffee Break)	
(2부) 15:30~17:30	4. 종합발표③ 해외창작거점 예술가파견사업 참여작가 좌담 ㅇ 독일 베를린 자유대 – 베를린과 나 (김이듬 시인) ㅇ 터키 앙카라대 – 아나톨리아 고원에 부는 바람은 안카라에서 잠든다 (손홍규 소설가) ㅇ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 글감의 보고, 사할린 (김민정 극작가) ㅇ 쇄빙선 아라온호 창작 레지던스 (한정기 아동문학가) ㅇ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 쿠바에서 만난 돈키호테 (배영옥 시인)	 31 46 50 53 56
부록	새로운 대지를 호흡하다	59

SESSION

1

공간의 이동과 새로운 창작



‘먼 곳’의 문학적 가치
-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체험기

김 형 수 (소설가)

1.

고은은 한 일간지가 연재한 좌담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세계의 실감을 ‘양세기의 달빛’이라는 비유로 일갈한 바 있다. 20세기의 자궁에서 태어나 21세기의 대륙을 걷는 영혼을 ‘시간의 양서류’라고도 한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물에서 지내다가 어른이 된 후에는 뭍으로 오른다. 하나의 척추로 두 개의 운명을 감당하는 곤혹과 딜레마를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겪고 있는지 모른다. 인간의 사유는 크고 넓어진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미세해지고 복잡해졌다. 의학은 생애의 대륙을 광활하게 넓혀 놓았으나 문학은 깨알처럼 작은 체험들밖에는 감당하지 못한다. 신체의 수명은 길어지고 인식의 크기는 작아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을 준다.

오늘날 거의 모든 예술이 겪고 있는 심각한 근심거리의 하나는 인간의 시야에서 대지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문명의 어항’ 같은 도시에서 창작된 소설에는 자연의 무대가 없고 시에서는 대지를 호흡하는 노래가 없다. 인간이 갖는 근원적인 욕구들이 우리의 본성을 구성할진대,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전율하는 욕구들은 모두 우리가 대지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런데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무섭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문명이 우리의 삶에서 대지를 내쫓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기에서 오는 문화적 재앙을 영화감독 잉그마르 베르히만은 꽤 오래 전에 읽었던 듯 싶다.

“오늘날에는 자아에 조금만 상처나 고통이 가해져도 그것이 영원한 중요성이 있는 것처럼 현미경을 대고 검토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고독, 주관, 개인주의를 거의 신성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거대한 하나의 펜 속에 모여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우리가 서로를 질식시켜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의 고독에 대해 푸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지의 유구함에 비추어 인간의 삶이 매우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 짧은 생애에 겪게 되는 적막과 소란, 두려움과 위안, 출생과 이별의 시간들은 어느 나라 말로 옮겨도 손색없는 문학이 된다. 하지만 ‘미(Me)밀레니엄’의 끝자락에 매달려 아직도 자기 연민에 시달려야 하는 사춘기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류의 문학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신화와 상상력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다.

2.

한국 근대문학은 일제하에서 태어났다. 100년의 문학사 중 약 80년은 국가적 민족사적 내홍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차압하는 환경에서 펼쳐졌을 것이다. 작가들도 국가적 민족사적 내홍 속에서 자기건강성을 찾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지상에서의 삶이 모두 국경을 넘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올 때 약 40억 인구가 세계시장경제체제의 일원으로 흡수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20세기의 지상을 21세기의 것으로 교체하느라 바쁜 서울은 '탈근대' '탈냉전' '탈이데올로기' 공사로 언제나 소란했다. 혹시, 서울의 상상력이 너무 자폐적인 것은 아닌지, '탈'이라는 글자는 이상하게 나를 대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꾸 유럽 정신의 더 깊은 골짜기 속으로 밀어 넣는 건 아닌지, 자주 이런 의심으로 골똘해지고는 했다. 그래서 나를 자신의 과거사와 단절되고, 대지에서 멀어지며, 미래의 반대편으로 걷게 하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인문학적 오지를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쉼 없이 솟구쳤다. 아마도 그런 결과가 나를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한 게 아닐까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한국 작가들의 경험적 기초를 재구성한다.

공간의 이동은 한 영혼이 맞닥뜨린 다수의 세계를 연결시킨다. 여행이 늘 문화의 형성에 관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관광이 인간의 욕망과 돈만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문단에는 아직도 김소월의 시와 동시대를 호흡하는 도보여행의 마지막 세대가 남아 있다. 그들의 작품에 새겨져 있는 문명사적 패러다임들이 함의하는 바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철도는 단순히 여행의 불편이나 위험만 제거시킨 게 아니다. 여행자(인간)의 지각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다. 깊이와 음영의 소실, 풍경으로부터 공간성의 제거, 산업혁명 이전까지 지각할 수 있었던 풍경들이 열차 속도에 의해 날아가 버렸다. '있는 장소'와 '보는 풍경' 사이에 '실체가 거의 없는 경계'가 비집고 들어선다. 비행기는 모든 경계를 촌각의 커튼처럼 젖히고 날아간다. 가령, 인천에서 비행기로 세 시간 반, 별로 두텁다 할 수도 없는 어둠의 커튼 하나를 통과하면 울란바타르이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산과 강과 호수들이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지의 목가적 연결이 끊어져버린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몽골에 닿을 때마다 지상의 어딘가에 아직도 이렇게 '광활한 곳'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동몽골 초원 끝 보이르 호수에 닿았을 때, 동서남북으로 산언덕 하나 없는 지평선을 보면서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이웃을 그리워하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 내 눈빛이 한없이 먼 곳까지 닿았으면 좋겠어. 내 목소리도 한없이 먼 곳까지 닿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도 끝없이 머나먼 저 곳에 닿았으면 좋겠어. 이런 그리움이 예술의 근원적 열정을 낳는 게 아닌가 한다.

3.

나는 몽골에서 만 1년을 살았다. 한국의 인터넷 매체에 연재소설을 쓰면서 낮에는 초원을 돌고 밤에는 누리꾼에게 떠들었다. 내가 아시아의 중세를 그리겠다고 하면 다들 놀라는 표정이다.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자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에 값할 인류사 상(像)을 얻기는 어렵다. 낡은 역사관을 대체할 그림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 관념이 자리 잡는 것이다. 나는 가톨릭과 비(非)가톨릭의 싸움으로 얼룩진 골방의 중세가 아닌, 이동문명과 정착문명, 유목민과 농경민이 부딪쳤던 광야의 중세를 그리고 싶었다.

현지에서 유목민중생활사를 취재하는 과정은 한없이 어렵다. 나의 신체에 새겨진 '협역 다수의 문화'는 '광역 소수의 대지'에 내놓으면 너무나 유치해진다. 이야깃거리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곳에는 한국의 작가들이 수없이 퍼다 써도 될 만큼 신화가 남아돌고 있었다.

몽골고원은 바다에서 융기했다. 사막에서 진주를 줍기도 하고 소금을 생산하기도 한다. 몽골고원이 처음부터 높은 곳이 아니고 영원히 낮은 곳(바다)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구라는 별의 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표는 해와 달을 번갈아 맞으면서 바람이 이동하고 계절만 변하는 게 아니다. 지괴는 한 몸통이니 어느 시기에 어떤 생명체가 더 높거나 낮은 곳에 위치했다 하여 그곳이 오지일 수 없으며 그들이 야만의 족속일 수 없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낳은 자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문화를 형성하며 그에 맞는 문명을 기른다. 지구의 가슴팍에 속하는 광활한 대지가 초원으로 변했을 때 그곳에 남아 있던 최초의 인간들이 발견한 유목의 대서사를 오늘의 인류가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고원에 광범하게 흩어져 있는 고대 암각화들은 초원의 대서사시와 고대 박물관을 겸하는 거대한 자연 화랑이요 기록관이다. 아시아 내륙이 강추위와 건조지대에 시달릴 때 유라시아 대륙이 사막과 초원으로 바뀌자 생물의 태반은 살길을 찾아 떠나야 했다. 그런데 대지에 가득 풀이 남았으며, 그 소비자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의 먹이사슬을 만들었다. 풀의 1차 소비자는 나비, 지렁이, 메뚜기, 쥐, 토끼, 양, 사슴 등이다. 메뚜기류는 잠자리, 여치 등 2차 소비자에게 먹히고, 그것들은 다시 도마뱀, 박쥐, 두더쥐 등에게 제공되며, 3차 소비자는 뱀 여우 등에게 먹힌다. 맨 꼭대기에 5차 소비자 늑대가 있다. 그 늑대는 인간처럼 조직생활을 한다.

풀에서 늑대에 이르는 생태계의 연쇄 고리는 자신의 번성을 위하여 타자를 멸종하려는 폭군을 용서하지 않는다. 초원의 풀은 태양 방사에너지의 0.5퍼센트밖에 흡수하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동물의 생존환경을 제공한다.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치우지 못하는 것은 참새 때문이며 참새가 메뚜기를 다 먹어치우지 못하는 것은 독수리 때문이다. 먹이사슬의 연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체수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중간에 있는 어느 소비자가 없어져도 천적이 없어진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되면 초원은 결국 파괴되고 만다. 자연은 이렇게 지엄한 것이다. 언뜻 보면, 세계는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생명이 작은 생명을 지배한다. 모든 생명의 먹이에 불과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물이 지구의 가장 큰 생명이다. 이 물의 자취를 따라 초원이 형성되고, 그 초원의 이동(계절마다 초록이 이동해 다니는 걸 보라)을 따라 양떼들이 목숨을 구걸해 다니며, 양떼들의 이동을 따라 유목민이 잉여재산을 창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목민은 동물을 직원으로 둔 CEO들 같다.

농경 정착문명이 신에게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종의 기원'을 이탈한 점일 것이다. 농경 문명권에서 인간에게 이롭다고 판단되는 모든 동식물은 품질개량 되었다. 유전자 변형은 얼마나 심각한 '신에 대한 범죄'인가. 유목 이동 문명이 남긴 '신 앞에서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 생태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농민이 식물에 대해 아는 것보다 유목민이 동물에 대해 아는 게 훨씬 많다. 하지만 유목민은 수 천 년 동안이나 동물을 경영했으면서도 잉여 생산을 더 많이 내기 위하여 이종 배합을 시도하거나 유전자 변이를 감행하지 않았다. 대신에, 지구의 좋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차단한 정착문명의 사람들을 약탈하고는 했다. 그들은 말한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이동하는 자만이 흥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삶에서나 작은 허물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큰 재앙이 온다. 자본주의에서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같은 것이 대공황을 낳듯이 유목민도 '조드'라 하는 대재앙을 만난다. 초원에서는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위 면적당 양의 분포가 적절한 개체로 유지되어 왔다. 그것이 깨지면 초원이 파괴된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모든 범죄는 타자를 향한 연민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깨뜨리는 곳에서 시작된다. 가령 여름에 가뭄을 만나면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모자라고, 그것은 다시 가을에 먹기 위해 아껴야 할 풀을 침범하게 된다. 그해 겨울에 한파가 오면 이듬해 봄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수천만 마리가 일시에 얼어 죽는다. 이게 초원에서 발생하는 '생태계의 인플레와 디플레로 인한 유목 사회의 대공황'이다. 1999년 대형 조드가 발생했을 때 몽골 정부가 호소하는데 CNN 방송과 인터뷰한 한 부족장의 말이 기억난다. "이건 인간의 탐욕이 낳은 재앙이다. 신이 내리는 벌이다." 내가 이상했던 것은 CNN이 부족장이라고 명명했음직한 신분의 인간을 그 많은 여행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그러나 상식적으로 유목민에게 지도자 혹은 정신적 어른이 없을 턱이 없다), 더 이상한 것은 '조드'라는 재앙을 인간의 탐욕이 낳은 '신이 내린 채찍'으로 이해하게 되는 맥락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그들의 정신세계일 것이다.

4.

한국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몽골 체험을 하고 와서 〈늑대〉라는 빼어난 소설을 쓴 전성태는 이 작품에서 탐욕적인 도시인이 늑대 사냥을 다니면서 일으키는 인간 내면의 풍파들을 그리고 있다. 아무리 강한 동물도 '동물원'에 가둬서 귀여워하는 문명 속의 인간들이야 한낱 개의 형상에 불과한 늑대의 위용을 어떻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한국 문학에서 그 문제를 실감나게 다룬 작품이 황순원의 〈이리도〉이다. 분단 이전의 한국이 얼마나 넓은 시야를 유지하고 살았는지, 그 그늘이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 얼마나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지 느낄 수 있게 하는 이 작품은, 작가가 여행 자유화도 없고, 삼팔선 이남만을 숙명의 공간으로 삼게 했던 때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과학기술에 기대어 몽골 여행을 열두 번이나 다녀온 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단편 〈이리도〉의 압권은 고원을 찾아온 일본인이 권총을 가져서 밤에 늑대의 기척을 무서워하지 않고 잡겠다고 나가는 것을 유목민이 붙잡는 대목이다. 늑대도 총소리를 무서워하나, 정히 쏘려거든 허공을 향해 한 발만 쏘아서 겁만 주는 것으로 끝내라. 그러나 일본인은 사격술만 믿고 뛰쳐나가서 늑대와 대적한다. 이윽고 들려오는 총소리, 늑대의 비명. 그러나 주인이 말하기를, 탄환이 떨어지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늑대 앞에서 총은 인간을 지키지 못한다. 늑대는 자살 테러를 선택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이는 늑대의 서사를 파악하지 않고는 이해할 길이 없다.

초원에서 5단계에 이르는 먹이 사슬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관리, 경영하여 잉여생산을 만들어 낸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헤게모니 싸움을 벌인 것이 늑대였다. 사회적이고 지능적이며 전투적 특성을 지닌 늑대는 자신의 영토를 인간에게 빼앗기자 마지막까지 테러 방식의 저항을 기도한다. 그것은 21세기의 지상을 유일 지배하려던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소수 저항세력의 공격술을 연상시킨다. 오늘날 벼랑 끝에 내몰린 늑대의 결사항전의 기록을 수많은 다큐멘터

리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몽골 유목민에게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늑대를 대하는 이중성이다. 몽골 유목민은 동물을 사랑하며, 번식기의 사냥은 특별히 금지되어 있는데, 초원에 나가보면 아무도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늑대 사냥만은 예외여서 그를 위해 총을 사용해도 되고 번식기에도 늑대 사냥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에 의해 장려되고 여러 마리를 잡으면 포상까지 한다. 이는 유목민 사회의 거점이니 수긍이 가는 일이다.

반면에 늑대 토템 또한 뿌리가 깊어서 모든 몽골인은 자신을 잿빛의 푸른 늑대의 후예라 믿으며, 푸른 늑대의 성격을 역사에 구현한 칭기스칸을 존경한다. 바로 여기에 늑대의 서사가 숨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 문제작이 중국 작가 장룽의 『늑대 토템』이 아닌가 한다.

"초원 민족이 지키려는 것은 큰 생명체다. 그래서 그들은 초원과 자연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경민족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작은 생명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큰 생명체가 사라지면 작은 생명체도 전부 죽게 된다.' (……) 만약 큰 생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경민족은 대량으로 화전을 일구고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초원과 자연이라는 큰 생명체를 파괴했고 인류라는 작은 생명체까지도 위협했으니 이야말로 더 야만스런 행동이 아니겠는가."

생태학적으로 늑대는 초원의 소비자들을 조절한다. 어느 하나가 필요 이상으로 번식하거나 멸종되어 초원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택하지 않는다. 문명을 축적하여 이기적 능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늑대보다 훨씬 유능하지만, '초원'이라는 큰 생명을 조절 관리한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이 무능하다. 인간에게 맡기면 초원은 순식간에 황폐화되며 초원의 생태계는 대공황에 빠진다.

여기서 유목민 부족장의 말을 해석하자면 늑대 토템을 잃은 인간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잉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자(늑대)를 멸종시켰던 것이 결과적으로 초원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생을 깨뜨렸으며, 그로 인해 인간에게 보호 받는 생명체들이 과도하게 풀을 소비한 결과 큰 생명체가 위기에 빠졌다. 그로 인한 자연의 조절 운동이 '조드'를 만들어 초원의 크기보다 넓은 영토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청소한 것이다.

5.

몽골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듣는 지적 중 하나가 변형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혐의이다. 한국인이 초원에 다녀와서 신비감을 전하는 것이 동양에 대한 편견을 가진 유럽인이 아랍이나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핀잔이다. 이 신중한 조언을 그러나 나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작가로서 21세기의 서사를 고민할 때 나는 흔히 초원의 삶을 떠올린다. 칭기스칸의 군대에게 패한 후 중원 정착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려낸 근 천 년 가까이 된 삼국지적 인간형들로 우리는 20세기까지의 인간군상을 유형화하고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삼국지적 인간형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인간들이 당대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 예전과 너무나 다른 인간이 많이 출현한 오늘날의 성격들을 13세기의 유라시아 대륙은 풍부하게 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부딪쳤던 현실과 비슷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 도시 유목민, 이동태의 삶, 소통하는 인간형……. 이건 21세기에 서울에서 사는 정신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교훈으로 던져진다. 성을 쌓으려는 자들이 인류를 계속 재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인간을 그리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이지 몽골만의 문제거나 유목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 세계문학과 만날 것인가?

-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만남을 사유하는 일

고 봉 준 (문학평론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만남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유럽 소설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는 모방이나 한국문학의 특수한 경험과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의 기계적인 절충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몇몇 작가들의 작품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 소개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문학'이 '세계(국제)'에 현존하는 국가들의 산술적 합에 의해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세계문학'의 정전을 구축해온 힘은 '유럽'에서 발원했다. 밀란 쿤데라가 "소설의 역사들", 즉 소설적 계보의 다양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설'을 "유럽의 산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자크와 찰스 디킨즈에서 시작되는 리얼리즘도, 헤르만 블로흐-곰브로비치-로베르트 무질-카프카로 이어지는 세기말/초의 모더니즘도 '유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20세기 후반에 각별한 주목을 받았던 남미의 소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럽인들에게 '남미'는 '유럽'의 연속/확장으로 사유된다. 이 연속/확장이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산물임은 분명하지만 유럽인들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특유의 관계망을 통해서 '남미' 문학을 유럽문학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일찍이 쿤데라는 "소설의 정신은 연속의 정신이다."라고 썼는데, 이때의 연속성이란 지리적 동질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동질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20세기의 유럽인들에게 '남미'의 시계는 표준으로서의 "유럽의 시간"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유럽의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세의 여명기에 남부 유럽에서 형성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본질을 표현하면서 훗날에는 그 공간을 지리적 의미에서의 유럽 바깥으로까지 넓혀가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밀란 쿤데라)

괴테가 처음 사용하고 훗날 맑스가 인용한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에서 '세계'란 이처럼 사실상 '유럽'의 동의어였고, 비록 상이한 계보를 중심으로 집필되었으나 루카치와 바흐친의 소설론 또한 결코 '유럽'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유럽 문학의 중심성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미국의 개입으로 크게 바뀌었다. 유럽문학의 정전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출판시장을 미국 자본이 장악함으로써 '세계문학'은 뜻하지 않게 두 개의 중심으로 분리되었다. 즉 오늘날 '세계문학'의 정전은 유럽의 문학적 역량과 미국 출판계의 자본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 하나, 미국 대학의 문학 연구가 '세계문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주, 이민, 망명의 흔적을 깊이 새기고 있는 현대의 미국문학 연구는 유럽의 중심성과는 다른 시선으로 비유럽권의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의 세계문학 텍스트에서 유럽과 남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학문적 관심의 결과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니다. 요컨대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에 외삽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유럽문학의 정전성과 '경쟁'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출판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미학 대학의 문학연구 경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의 출판시장을 중심으로 담론화되고 있는 ‘세계문학’에 한국문학이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장의 무관심은 물론 미국의 문학연구자들이 ‘한국문학’에 무관심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접속, 또는 세계문학에의 진출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령 장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출판시장과 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문단 메커니즘의 불일치, 한국문학을 미국시장에 소개할 능력을 지닌 번역자의 부재 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더불어 유럽의 문학이 역사성을 배경으로 거느린 유럽의 비극적 근대경험을 강조하는 데 비해 한국소설의 대다수가 특유의 인간주의를 중심으로 한 당대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도 약점의 하나일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다수의 교수들이 소설 창작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소설을 읽지 말라고 충고한다고 한다. 이것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한국문학의 수준이 그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물론 이것은 소설가 개인의 능력 부재, 즉 미국 시장을 거쳐서 우리에게 당도하는 대부분의 유럽소설들에 비해 한국작가들의 사유의 깊이와 문체가 일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소설의 스케일과 깊이가 유럽의 그것에 뒤처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추측컨대 그것은 소설이 담을 수 있는 풍요로운 역사경험이 한국의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일 듯하다. 근대경험을 다룬 한국소설에는 가치관의 변화와 종교의 문제, 식민지와 동족상잔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여를 결핍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열린 장르인 소설의 가능성과 기준을 지나치게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유럽은 자신들의 훌륭한 정신적 연속성 안에서 소설의 전통을 만들어왔는데, 그것이 반드시 한국문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를 ‘보편’과 ‘특수’의 문제로 사유하려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보편’과 ‘특수’의 문제 - 설령 보편적 정서(세계경험)와 특수한 정서(한국 경험) - 로 사유하는 태도야말로 유럽중심의 ‘세계문학’을 유일한 잣대로 인정하는 식민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문학’의 정전들 역시, 굳이 ‘보편’과 ‘특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특수들’일 뿐이고, 그런 점에서 ‘보편’과 ‘특수’라는 구별은 일종의 허구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한국문학의 ‘특이성’을 표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오늘날 세계는 국경이 없는/무의미한 전지구화 시대를 직면하고 있고, 한국은 어느덧 노동력을 수출하는 자본주의의 변방에서 초국적인 자본과 노동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문제적인 지역이 되었다. 한국‘문학’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은 지금 충분히 ‘보편’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 또한 예전에 비해 한층 많아졌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한국문학의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의 근대경험을 역사적 사실의 층위가 아니라 가치의 차원에서 포착함으로써 역사적 진술과 경쟁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사성의 획득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적인 이동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적 특이성을 소설화하는 가능성이다. 물론 이들 두 가지 문제의식은 이미 한국소설에서 시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몇몇 작품들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상 사실의 층위만을 건드리고 지나갈 뿐 시공간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동반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면 우리가 헤르만 브로흐, 미셸 우엘벡, 파스칼 키냐르 같은 작가들의 소설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묘한 콤플렉스 역시 이러한 결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유럽문학의 힘은, 개인적인 문체와 사유의 깊이를 제외하고 말한다면, 대부분 이동과 이주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국을 경험한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유태인 문학의 핵심은 이러한 이동과 이주의 운명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한국문학에서 이러한 이동과 이주는 '사건' 자체가 강조될 뿐 그것이 인간 주체와 가치의 변화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해명하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의 경우 근대경험에서 기원하는 상처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서술되거나, 나아가 '치유'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만다. 문학에서 '상처'는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문학이 이동과 이주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횡단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문학은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근거한 정체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강박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 '한국적인 것'조차도 타자와의 접촉에서만 비로소 인식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의 경우, 한국의 바깥에서 한국을 사유하는 것은 1994년 이후에야 '현실'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작가 개인의 역량 문제를 제외한다면, 타자 경험 속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사건의 소설화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집착보다 한층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타자 경험이 한국소설의 일부에서는 선-악의 대립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문화의 차이들이 단순하게 공존하고 있는 사실의 차원에서만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역사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문학의 그것은 아니다.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오늘날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관해 살펴보자.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만남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준비가 무엇일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작가에 국한하여 말하자면 미국의 작가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다. 또한 한국문학을 미국 문학시장에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론가가 필요하다. 이 평론가는 당연히 국내의 필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이거나 문학연구자이어야 한다. 국내의 많은 문학인들은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약진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약진 이면에 가려져 있는 실상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자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미국시장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행본을 출간했기 때문이 아니라 『뉴요커』라는 잡지에 꾸준히 작품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이 잡지는 150만부를 발행하는 미국의 메이저 매체로서, 미국의 문학관계자들은 단행본을 읽지는 않을 경우에도 이 잡지는 꾸준히 읽는다고 알려져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요시모토 바나나 등을 미국에 소개한 것은 이 잡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공인된 평가이다. 또한 하루키의 경우에는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하루키 연구자들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즉 하루키와 일본문학을 미국의 문학계에 소개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풀이 갖춰져 있고, 나아가 일본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영어로 소개할 능력을 갖춘 평론가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성공 요인이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노력 없이 오로지 미국 시장에서 단행본을 출판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많은 번

역물들이 미국 시장에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지극히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당장에 중요한 것은 단행본을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일이고, 더불어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평론가·학자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상당수는 공학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논리가 상당히 강고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문학에, 또는 미국의 문학시장에 한국문학을 외삽하는 일은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일만큼이나 단기적인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현재 미국시장은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관심이 없지 않으나 정작 그동안 미국에 소개된 한국의 전통, 가치관, 문화, 문학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간되는 한국작가의 단행본이 그 거대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시대의 문학을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한국의 전통서사와 문화 전체를 소개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기준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작가들의 해외 체류를 지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까? 이 문제에 관한 우리는 지역과 기간을 따지지 말고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야 한다. 궁극적인 관심이 미국시장이라면 미국 파견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작가들의 해외 체류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만 그 체류 기간을 통해서 작가들이 해당 국가의 작가들과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다면 한국문학을 해외시장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질 의 문

이 소 연 (문학평론가)

1.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에 외삽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유럽문학의 정전성과 ‘경쟁’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출판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고봉준 선생님의 탁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 접속 또는 교류하는 지점을 찾을 때 필연적으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장의 한계와 가능성입니다. 해외의 출판시장을 중요 변수로 고려할 때 자칫 문학을 하나의 ‘상품’으로 환원시킬 위험성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마치 최근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문화산업의 ‘한류’ 담론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판이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논할 때 ‘시장’의 논리와 비켜서서 숙고하는 일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세계문학에, 또는 미국의 문학시장에 한국문학을 외삽하는 일은 (…) 단기적인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문학을 비롯한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고려할 때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순환과정에서 독립시켜 사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금의 출판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서, 획일화된 시장 중심적 문학의 유통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찾아 독자적인 논리를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내 작가의 해외 체류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러한 내재적인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일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 문학의 내실을 다지는데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것을 우리의 지평 안에 포섭하는 일은 ‘나/우리의 정체’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봅니다. 그 만남의 장안에서 세계와 존재에 연루된 사유의 깊이, 상상력의 편폭은 한결 확충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형수 선생님의 발표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 먼저 “변형된 오리엔털리즘에 대한 혐의”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타지에서 얻은 문화적 자극을 안으로 끌어들여, 우리네 삶의 양태를 재현하는 틀로 전유하는 작업은 충분히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을 우리 내부에서만 소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문화의 형태로 되돌려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작품을 어떻게 볼지, 숙고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더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타자를 전유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변형된 오리엔털리즘'의 기제가 우리에게도 작용하고 있는 지 검열하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재현된 '그들' 혹은 '저 세계'의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충분한 호소력을 갖고 보편타당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언제나 타자에 대한 고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몽골을 비롯해 우리 문화권보다 자본주의화가 덜 진전된 문화권을 대할 때 혹시 시선의 제국주의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타자와 소통할 때 취해야할 자세가 제국주의자들이 과거 우리 문화권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비문명에 대한 충격'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또한 우리 자신이 여전히 제국주의, 혹은 서구적 보편에 대해 '타자'로서 존재하는 현실을 드러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 1억도 안 되는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문화의 현실을 생각할 때 '세계화'라는 화두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문화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두 분 모두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앞서 저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작업이 '상품주의' 혹은 '시장주의'와 '변형된 오리엔털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연루될 위험성에 대해 한 번씩 여쭙고 지나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포함하여 문학의 세계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조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할 어떤 '세계화의 윤리' 같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학 특히 이른바 '진정성있는' 문학의 경우 비주류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세'가 주도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 내에 일부 세계화, 세속화에 저항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수 언어로 된 문학의 경우 사정은 더 나쁠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을 다룰 때 기술 관료적 논리,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서서 과연 소수언어로 '저항적인' 혹은 '소외된' 이들의 삶과 목소리를 끌어안는 '문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새삼 묻게 됩니다.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 저항과 소통의 에너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문학을 '세계화'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다룰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지점, 혹은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내 작가들의 해외 체류 사업이 이러한 '세계화의 윤리'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번역, 세계문학의 유일한 길

조 재 룡(고려대)

'번역, 세계문학의 유일한 길'은 가설이 아니라, 결론이 이미 도출되어 있는 명제와도 같은 것이다. 증명해야할 것이 있다면,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세계문학'이라는 개념과 '문학의 세계화'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물음을 제기한다는 사실, 그러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는 공히, 번역을 매개로 진단과 그 고민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논의의 복잡성과 아이러니도 여기에 놓여있으며,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를 '보편'과 '특수'의 문제로 사유하려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발제자의 비판에 동의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문학은 축구선수단이 아니다. 호르몬의 분비 정도와 효율적 활용의 정도를 정해진 시간 내에 측정해 내서, 결국에는 우승팀 하나를 가려내고야 마는 힘겨루기 경쟁과도 닮아 있는 논의들이 '세계문학'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정전(正典)이 타당한 기준인 듯해도, 또한 세계문학이라는 화두 아래 한 번쯤 고민해볼 목록이자 합리적인 기준인 듯해도, 기실 가짜 개념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활동을 진작하고 번역에 놓인 척박한 환경을 개선하자는 선전물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문학의 세계화 논리는, 괴테나 베르만이 역설했던, "단순히 세계적 정전의 집합도 아니지만, 국민문학과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단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닌" 세계문학, 예컨대, 오로지 번역을 통해 구현해볼 바로 그 세계문학의 구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천의 양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학들 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자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을 선동과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발표자의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에 외삽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유럽문학의 정전성과 '경쟁'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출판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당면의 과제에 대한 절실한 촉구로 읽힌다.

물론 그럼에도 문제는 산재한다. 아무리 번역을 이야기해봤자, 다양한 번역어가 아니라 영어라는 단일 창구로 수렴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와도 같이,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제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 현실에서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기 때문이다. 실로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이 존재하니, 획일화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변명해보았자, 이 각축의 경기장에서 심판은 영어로 대변되는 세계화와 글로벌화, 표준화에로의 동참을 경기의 목적이자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경기의 주요 룰로 번역을 상정해 놓을 뿐이다. 판정의 아이러니는 휘슬을 부는 순간이 바로 번역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순간('좀 제대로 플레이 해!')이면서도, 또 바로 이 순간, 문학의 세계화는 번역의 다양한 활로를 차단하는 치명적인 옐로우 카드('빨리 골을 넣어야 하니, 뛰어난 선수에게 공을 보내라!')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하나의 언어를 향한 하나의 번역, 하나의 세계관으로 물든 하나의 세계문학 안에서, 한국문학은 이렇게 위대해야만 비로소 다가

갈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자, 전 지구적 파워와 추종을 불허하는 출중한 역량을 두루 갖춘 튼튼하고 강건한 문학이 되기를 멍하니 욕망할 뿐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꿈꾸며 여기저리를 떠돌아다니는 "바나나맨"[1]의 저 비장함 속에는 언젠가 세계문학사에 제 자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반사되어 나온 비애와도 같은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문학을 민족(국민)문학과의 대척점에 놓고서 논의를 진행한들, 아이러니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바나나맨"의 콤플렉스를 부추기면서, 세계문학을 우리 문학이 도달해야할 시원으로 요원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저 제어될 줄 모르는 상승을 향한 욕망은, 문학을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잣대로 양분한 다음, 후자의 국지성을 전자의 세계성에 대비시켜 놓고서, 후자가 전자가 될 방법을 모색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추동한다. "유럽중심의 '세계문학'을 유일한 잣대로 인정하는 식민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처럼, 미국 중심의 시장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작금의 논의들도 편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영원히 고수해야 할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바로 그만큼, 단일성(unicité)-진리(vérité)-총체성(totalité)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갇히며,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는 바로 또 그만큼, 보편적이고 확정 가능한 보편적인 문학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이데올로기의 최종 심급이자 최소한의,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단위는 전지구화-보편성-평등성이며, 이는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이질적인 것을 동일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화폐의 논리, 즉 화폐의 효율성과 문학의 발전과의 상관성을 전제하고서, 한국문화의 보편적 역량을 재고하는 데 물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는 슬로건 따위를 앞세워,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지금-여기의 한국문학에 열등감을 부추기고 글로벌스탠더드의 획일화와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의 공포를 조장하면서 한국문학을 콤플렉스의 우리 안에다가 영원히 가두어두려고 기획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영어의 공포, 영어를 하지 못하는 자의 공포는, 교육의 현장에서는 보편적·이상적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자극제이자, 문학의 세계화를 위급한 사안으로 둔갑시키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알리바이 역할을 한다.

세계라는 보편적인 것과 국가(민족)라는 특수한 것 사이의 전적인 대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자도 옳게 지적하고 있지만, 괴테의 경우만 따져보아도, 이 둘이 서로 상충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으며(특수한 것의 개별적 진술들은 고립된 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 이해의 문학적 표현들이며, 그 구성물이라고, 괴테의 논의를 이해해야하는 바),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은 번역의 필연성과 실천의 당위성에 대한 청원을 불가피한 대안으로, 그러나 단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이끌어낸다. 이는 외국어를 통해 모국어를 읽는다는 관점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것이기도 해서, 고수해야할 모국어나 저버려야하는 모국어라는 이분법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번역 안에서, 번역에 의해서', 모국어의 추이와 변화와 유통과 활성화와 성장과 소멸, 이 모든 현상을 지켜봐야할 횡단·언어적 실천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세계문학의 개념은 오

1) 박민규, 『지구영웅전설』, 문학동네, 2004. 28면.

로지 번역을 통해 개별 문학 간의 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또 회전한다는 전제하에서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논의는 "한국의 바깥에서 한국을 사유하는 것은 1994년 이후에야 '현실'의 일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여기에 덧붙이면,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더불어 국제저작권 협약이 체결된 것도 바로 이 즈음이라는 점이다)에 가능해진 것도 사실이다.

외국작품의 한국어 번역이, 한국 문학의 내부(김영하, 배수아, 김연수 등)에서 작동하여 창작의 모티브가 되거나 문체의 실험을 추동한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이 그 원문을 집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근본적인 속성이, 여하한 고유한 것과 낯선 것의 이분법을 더 이상 구동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나아가 작위적인 구분이나 유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경계조차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결국 정체성 안에는, 어디서나 언제나, 타자의 몫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역방향의 문제가 여전히 남겨진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접속",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닌"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에의 진출"을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발표자는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한국의 근대경험을 역사적 사실의 층위가 아니라 가치의 차원에서 포착함으로써 역사적 진술과 경쟁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사성의 획득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적인 이동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적 특이성을 소설화하는 가능성"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는 한국문학의 '특이성'을 표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발표자의 지적이 핵심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국내의 필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이거나 문학연구자"에 의한 평론이며, 여기에 덧붙인다면, 현재 거개가 공동 번역으로 진행되고 있는(주로 외국문학을 전공한 한국어 번역가와, 한국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외국 연구자, 따라서, 한국인이 초역을 넘기면, '아름답고 매끄러운' 외국어가 될 수 있도록 수정과 첨삭, 변형을 가하는 외국인) 번역 경향도 더불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준비"는 바로 번역이라는 '문제'와 그 문제 주위에 산재한 또 다른 문제들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재고에서 착수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 질의가 될 수 있었을 토론을 논평으로, 혹은 견해로 바꾸어도 좋다는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글의 전반적인 성격이 결정되었습니다.

SESSION

2

해외창작거점 작가파견사업 참여작가 좌담



해외창작거점 예술가파견 지원

▢ 사업목적

○ 해외 창작거점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제공함

▢ 지원신청자격

○ 현지 비자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영어나 현지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예술인
※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

○ 문예진흥기금 지원 조건에 동의하는 자

▢ 지원 대상

○ 문인
- 희곡을 제외한 장르 : 최소 1권 이상의 발간 실적이 있는 문인
- 희곡 : 최소 1편 이상 공연 실적이 있는 문인

○ 그 외 : 세부 사업내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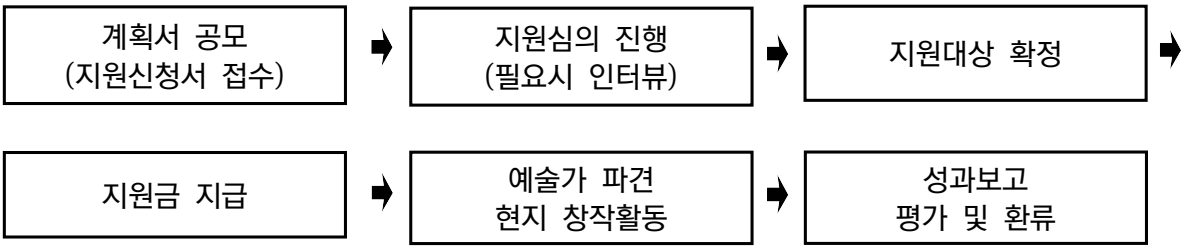
장르	파견기관 (협력기관)	주요 사업내용	비고
문학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 내용 :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창작프로그램 참여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3개월	
문학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2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3개월	
문학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3개월	
문학	러시아 사할린한국어교육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3개월	
문학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3개월	
문학	터키 앙카라대학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3개월	
문학	이탈리아 로마대학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소설가) ○ 기간 : 3개월	

장르	파견기관 (협력기관)	주요 사업내용	비고
문학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 대학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3개월	
문학	인도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레지던시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1개월	
문학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기간 : 45일 ※협력기관 협의 후 확정 예정	2차 공모 기간 신청
문학, 시각 예술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문인(1인: 시인, 소설가, 극작가) : 3개월 - 사진작가(1인): 1개월 ~ 3개월	
시각 예술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 내용 : 라익스아카데미 창작프로그램 참여 ○ 파견대상 - 시각예술분야 작가(1인) : 2년	
시각 예술	독일 베타니엔스튜디오	○ 내용 : 베타니엔스튜디오 창작프로그램 참여 ○ 파견대상 - 시각예술분야 작가(1인) : 1년	
시각 예술	영국 가스웍스	○ 내용 : 가스웍스 창작프로그램 참여 ○ 파견대상 - 시각예술분야 작가(1인) : 3개월	
음악	체코 프라하음악원	○ 내용 :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 작곡가 (1인) ※ 35세 이하 ○ 기간 : 3개월~6개월	
무용	오스트리아 댄스웹	○ 내용 : 댄스웹 프로그램 참여 ○ 파견대상 : 무용수 (1~2인) ○ 기간 : 1개월	
무대조명	미국 뉴욕 도날드 홀더	○ 내용 : 무대조명 디자이너 도날드 홀더의 프로젝트 참여 ○ 파견대상 : 무대조명 예술가 (1인) ○ 기간 : 3개월	2차 공모 기간 신청
무대음향	미국 뉴욕 네빈 스타인버그	○ 내용 : 무대음향 디자이너 네빈 스타인버그의 프로젝트 참여 ○ 파견대상 : 무대음향 예술가 (1인) ○ 기간 : 3개월	2차 공모 기간 신청

※ 동 사업은 파견 협력기관 발굴 및 프로그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중반 추가 공모 가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



○ 심사방법

-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신청기간

구분	신청접수기간	심의기간	대상사업
1차	2012.10. 1~2012.10.15	2012.11.	IWP(아이오와대학 창작프로그램) 등
2차	2013. 3.18~2013. 3.29	2013. 4.	무대예술 레지던스,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

※ 1, 2차 공모별 해당사업이 다르니 공모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모대상 세부사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천만원 ~ 3천만원

※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항목

○ 항공료 등 창작거점 체류활동을 위한 직접 경비

▢ 지원심의기준

영 역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내용
계획 단계 (P)	사업계획의 충실성 · 타당성 (40%)	○ 신청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뚜렷한 참가 동기 및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신청인의 실적 · 경력을 볼 때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적합한가? ○ 영어나 현지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국가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가?
집행 단계 (D)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30%)	○ 신청인의 작품활동, 프로그램 참가계획이 동 프로그램에 부합하고 예술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 신청인이 해외 예술가들과 상호 교류하며 자신의 작품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영 역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내용
성과 단계 (S)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인의 예술적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신청자의 동 프로그램 참가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자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가?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①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②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 자세한 제출자료는 별첨된 각 창작거점별 세부사업계획 참조

▢ 문의처

- 국제교류부 문학 담당 02-760-4747

해외창작거점 예술가파견 지원
(문학)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국제창작프로그램(IWP) 참가 지원

▢ 사업목적

○ 세계적인 문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아이오와주립대 국제창작프로그램(International Writing Program)에 우리 문학작가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 지원신청자격

○ 문인(시인, 소설, 극작가 등)
※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정기공모 심의를 통해 1명을 선정해 아이오와주립대 측으로 파견

▢ 사업개요

○ 주관처 :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국제창작프로그램 사무국
○ 참가기간 : 2013. 8월 ~ 11월 (3개월)
※ 해당 협력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프로그램
- 세미나, 워크숍, 낭독회 및 공연, 주간 토론회, 강연, 각종 창작 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 세부 소개

- 사 업 명 : IWP 창작 프로그램(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 기 관 명 :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
- 소 재 지 : 미국 (U.S.A) - 아이오와 (Iowa)
- 주 소 : Shambaugh Hous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52242-2020 USA
- 홈페이지 : http://iwp.uiowa.edu
- 연혁
  - 1967년부터 프로그램 시작
  - 아이오와시는 2008년 문학분야 유네스코창의도시(City of Literature)로 선정됨
  - IWP는 아이오와시의 대표적인 문학프로그램이며 아이오와시는 문화예술관련 지원 및 세계의 예술가들과 문화전문가들의 교류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기대효과

-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창작, 번역, 자료조사,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작품창작을 위한 다양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 제공
- 비영미권 작가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출신 작가들의 미국 내 홍보 및 출판계와의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용
강의	・아이오와대학의 다양한 작문 프로그램 참여 ・작문 프로그램, 번역 MFA프로그램, 극작가 워크숍, 영화연구, 비교문학,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문학 등 ・IWP 참여작가들은 강연자로서 수업 또는 회의 토론을 위한 초청을 받게 됨.
세미나	・IWP 참여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작품과 문단의 관계성에 대한 발표 ・매주 월요일 12:00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
워크숍 및 낭독회	・낭독회는 보통 2개 국어로 진행 ・다양한 개인 혹은 소그룹의 낭독회가 레지던시 기간 중에 각 분야의 도움을 받아 상시로 개최
공개 토론회	・문학적 이슈 및 영향력에 대한 토론으로 매주 금요일 대학 및 지역주민이 참관하는 가운데 지역 방송으로 공개됨.
출판 및 네트워킹	・미국 내 작품 출판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킹 기회 제공 ・극장, 출판사 정보 제공 및 미국의 출판업 상황에 대한 상담 ・문학가, 편집자 또는 출판인 초청 자문 ・10~15페이지의 수업, 독서/낭독에 필요한 번역, 편집된 작품 혹은 출판될 가능성있는 자료웹사이트 게시
공연	・극작가의 작품을 낭독하고 공연배우들이 대학 내 무대에서 공연 ・IWP에 참여하는 작가가 쓴 희곡 중 10-15분 분량을 발췌하여 아이오와 대학연극학과의 배우들에 의해 상연 ・장소 : Global Express ・지도 극작가 : Maggie Conroy
기타	・일반적으로 글을 쓰거나 리서치를 하는 자유 시간(화, 수, 목) ・문학 활동(월, 금 오후) ・견학 및 친목활동(토요일) ・IWP 스폰서들이 IWP 작가들이 쓴 작품 낭독 시간(일요일 오후)

※ 모든 프로그램은 통역 없이 영어로만 진행

● 숙박 (아이오와 하우스 호텔)

・Iowa Memorial Union 위치
・River Room, 까페테리아, Bijou 영화관, 서점, 회의실, 이벤트룸 사용 가능
・참가작가들은 창작에 필요한 노트북과 관련 소프트웨어 준비해서 프로그램 참여 (필요시 아이오와대학 소유의 컴퓨터 대여 사용도 가능)

▢ 지원규모

ㅇ 작가 직접 지원액

- 왕복항공료(실비), 문학 작품 번역료(시 15편, 소설 30페이지 내외)

ㅇ 예술위에서 IWP로 직접 납부하는 지원액

- 프로그램 참가비 : $12,200 내외(2012년 기준, 변동 가능)

※ 보험, 미국 국내 여비, 레지던시 트립, 숙박비, 식비,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

▢ 제출서류 및 자료

①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2년간 신청인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평론 자료 스크랩, 행사 사진 자료)

ㅇ 외국어 능력 증빙자료

ㅇ 신청자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집 1권 우편 송부

필요한 자료 제출은 email 제출(파일)을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email 제출 : **exchange@arko.or.kr**(파일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묶어서 제출해주세요)

※ 문예진흥기금사업명-신청주체명.확장자

▸ 우편 제출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26-1) 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152-050)

※ 1차 공모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2. 10. 15) 우체국소인일까지 유효
2차 공모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3. 3. 29) 우체국소인일까지 유효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2013년 공모(1차)-문학분야(신청자명-아이오와주립대 국제창작프로그램(IWP) 참가 지원)

▢ 문의처

- 국제교류부 문학 담당 02-760-4747

해외창작거점 예술가파견 지원
(문학, 시각예술) 해외 예술기구 및 대학 예술가 파견 지원

▢ 사업목적

○ 해외 예술지원기구 및 한국문화 관련학과(예: 한국어학과 등) 운영대학을 중심으로 우리 예술가의 파견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해외 창작거점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지원신청자격

○ 문인(시인, 소설가, 극작가), 시각예술작가
※ 영어나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를 해외 예술기구(단체) 및 한국학 대학 등에 파견

▢ 지원항목

○ 공통 지원항목
- 왕복 항공료 : 실비
-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가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월500$～월 1,200$)
- 식비, 일비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의 60% 지급

○ 기타 지원항목(사업별 특성에 따른 적용)
- 연구실 사용료 : 대상기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적용
- 한국문학 강의 사례비 : 작가별 2회(회당 20만원)
- 코디네이터 사례비 : 파트타임 근무, 국가별 차등 지원
- 문학 분야 작품 번역료(시 15편, 소설 30페이지 내외)

▢ 사업 세부내용

○ 예술가파견 해외 한국학대학 소개

구분	대학개황	한국학 강좌 현황
독일 베를린 자유 대학교	· 소 재 지 : 독일 베를린 · 주소 : Freie Universität Berlin, Habelschwerdter Allee 45, 14195 Berlin · 홈페이지 http://www.fu-berlin.de/en/ · 파견작가 : 시인(1인), 소설가(1인)	· 강좌개설 : 1980년대 이후 · 소속단과 : 역사문화학부 · 소속학과 : 한국학

구분	대학개황	한국학 강좌 현황
몽골 울란 바타르 대학교	· 소 재 지 : 몽골 울란바타르 · 주소 : Ulaanbaatar University ＵＬＡＡＮＢＡＡＴＡＲ ＤＥＥＤ ＳＵＲＧＵＵＬＩ · 홈페이지 http://www.ubu.ac.kr/ · 파견작가 : 시인(1인), 소설가(1인)	· 강좌개설 : 1992년 · 소속단과 : 어문대학 · 소속학과 : 외국어학과
러시아 사할린한 국어교육원	· 소재지 : 러시아 사할린 · 주소 : 83-A Korean Education Center in Yuzhno-Sakhalinsk, Mira, Yuzhno-Sakhalinsk, Sakhalin Russia · 홈페이지 : www.sakhalinedu.com · 파견작가 : 문인(1인: 시,소설,극작)	· 개원년도 : 1993년 · 운영강좌 :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교실
러시아 이르쿠츠크국립언어대학교	· 소재지 : 러시아 이르쿠츠크 · 주소 : 8.kab.518, ul.Leina, Irkutsk Russia 664025 · 홈페이지 http://www.islu.ru/f_vostok_ka · 파견작가 : 문인(1인: 시,소설,극작)	· 강좌개설 : 1996년 · 소속대학 : 동양어학부 · 소속학과 : 한국어학과
터키 앙카라 대학교	· 소재지 : 터키 앙카라 · 주소 : Yabanci Diller Yuksekkk Okulu Ankara Universitesi Golbasi 50. · 홈페이지 http://www.ankara.edu.tr/english · 파견작가 : 문인(1인: 시,소설,극작)	· 강좌개설 : 1989년 · 소속대학: 문학부 · 소속학과 : 한국학과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짜 대학교	· 소재지 : 이탈리아 로마 · 주소 : Faculty of Oriental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V.Principe Amedeo 184, 00185 Roma, Italy · 홈페이지 : http://www.uniroma1.it · 파견작가 : 소설가(1인)	· 강좌개설 : 2001년 · 소속대학 : 동양학부 · 소속학과 : 동양학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니자미사범 대학교	· 소재지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주소 : 103, Yusuf Xod Hojib, street, Tashkent, 100100, Uzbekistan · 홈페이지 http://www.tdpu.uz · 파견작가 : 문인(1인: 시,소설,극작)	· 강좌개설 : 1956년 · 소속대학 : 외국어학부 · 소속학과 : 한국어문학과

○ 예술가파견 해외 예술지원기구 소개

구분	기구 개황	기관
인도 인코센터 협력 상감하우스 레지던시	· 소재지 : 인도 첸나이(남인도) · 주소 : 51, 6th Main Road, Raja Annamalaipuram, Chennai-600 028 · 홈페이지 http://www.sangamhouse.org · 파견작가 : 문인(1인:시,소설,극작)	· 해마다 전 세계에서 약 20명의 문인들을 초청하여 10주간(1월~3월)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예술위원회 파견작가는 4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

구분	기구 개황	기관
쿠바 호세 마르띠 문화원	· 소재지 : 쿠바 하바나 · 주소 : Calle 7 ma, No 4208, entre 42 y 44, Miramar, La Habana, Cuba호세마르띠 문화원(Cultural Society Jose Marti) · 파견작가: 문인(1인), 사진작가(1인)	· 국가평의회 산하단체로 2011년도부터 아르코와 작가 파견 합의 · 쿠바의 국가적 영웅인 호세 마르티를 기리기 위해 조직된 문화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수행

▢ 제출서류 및 자료

①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공통 자료 : 최근 2년간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평론 자료 스크랩, 행사 사진 자료)

○ 분야별 자료

분야	제출자료	제출방법
문학	· 신청자 본인의 대표 작품집 1부	우편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은 email 제출(파일)을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email 제출 : exchange@arko.or.kr(파일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묶어서 제출해주세요)

※ 문예진흥기금사업명-신청주체명.확장자

▸ 우편 제출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26-1) 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152-050)

※ 1차 공모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2. 10. 15) 우체국소인일까지 유효
2차 공모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3. 3. 29) 우체국소인일까지 유효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2013년 공모(1차)-문학분야(신청자명-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 참가지원)]

▢ 문의처

- 국제교류부 문학 담당 02-760-4747

독일 베를린 자유대 - 베를린과 나

김 이 듬 (시인)

베를린과 나(1편)

(아르코 웹진 209호)

▶ 베를린과 나(1편)

❙오늘 밤 잠잘 곳은?



▲ 집으로 가는 길, 대부분의 이정표는 흰 바탕에 검정 글씨인데 디자인도 맘에 든다. 깔끔하고 철저한 독일인의 인상과 닮았다.

"여기 도서관이 어디예요?" 한국어가 반가웠다. 아까 낮에 베를린자유대학 교정에서 내게 말을 건 사람은 배낭여행 중인 한국인이었다. 사월 말에 전역했는데 맘이 잡히지 않아 큰맘 먹고 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파리에서 이틀 있다가 어제 베를린 도착했다며 유명 관광지를 거의 다 돌아보고 지금은 유학 중인 친구를 만나려고 도서관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저녁엔 드레스덴에 갔다가 내일은 프라하로 넘어갈 거라며 빡빡한 일정표를 내게 보여주었다. "여행 많이 하셨어요?" 그는 내게 물었지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보름이면 다 돌아볼 동유럽 6개국 도시들 속에 포함된 베를린에서 나는 한 달이 다 가도록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 투어는 꿈도 꾸지 않았고 티어가르텐의 아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페르가몬박물관이 어디 붙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매일 씩씩거리며 관광지 아닌 곳들을 돌아다녔다. 왜냐하면 일단 방을 구해야 했으니까.

예정대로라면 학교에서 주선해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겠지만, 그게 대학 측 사정으로 덜컥 변경되었다. 입국한 날 밤, 춥고 비까지 내리는데 트렁크를 끌고 민박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집을 구하는 일에 전념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신문을 넘겨보다 집주인과 통화해서 시간 약속을 정해 찾아가면 매번 여권을 보자, 월세 보증금은 있나, 직업이 뭐냐, 연봉은 얼마냐, 왜 베를린에 왔냐는 질문은 빠지지 않았다.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시설이 집결되었다는 베를린 미테에 집을 구해서 멋진 베를리너의 폼을 잡고 싶었지만 그 동네 집주인 할

머니는 아시아 여성이라서 곤란하다고 했다. 학교 근처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는 그 집 주인이 건강 상태와 취미, 앞으로의 계획까지 입사면접 보듯 물어보더니 웬일인지 좋다고 내가 맘에 든다고 말했고 지칠 대로 지쳐있던 나는 속으로 환호성 지르며 곧바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 사람은 파란 눈의 독일인 사진작가였는데 시를 쓰는 사람이면 잘 통할 것 같다고 했다. 시인이라는 게 이상한 데서 효용을 발휘하는구나. 그는 공유할 공간이라며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에서 거실로 튀어나온 회색 고양이 세 마리를 보자 난 도무지 그들과 공동 생활할 자신이 없었다. 황급히 서류를 챙겨들고 5층에서 1층까지 한달음에 내려왔다. 이렇게 약도나 주소 적은 쪽지를 쥐고 툴툴거리며 다니느라 이제 지하철 노선이 훤하다. 여행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추천 받은 유명 카페나 바, 레스토랑엔 들를 정신이 없었지만 다리가 아프면 비쌀 것 같지 않은 아무 맥주집 혹은 케밥 가게에 들어갔다. 어떤 담벼락엔 그라피티가 매우 훌륭했고 구석진 곳에 공터도 발견했다. 거기서 주말에는 시장이 열리는데,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이 몰려드는 시내 중심부의 벼룩시장과 달리 좋은 기념품이나 진짜 싸게 진귀한 골동품을 건질 수 있다는 귀띔을 들었다.



▲ 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 개찰구도 없고 벽도 없다. 지하철 문은 타고 내리는 사람이 직접 눌러야 열린다.

드디어 민박집에서 이사했다. 인간이 어딘가로 오고 또 어딘가로 가는 데는 신의 섭리가 있다고 민박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사이 정이 들어 우리는 찔끔 눈물을 흘릴 뻔했다. 나는 이제 베를린 시내에서 벗어난 외곽으로 남쪽 숲속에 있는 전형적인 독일 주택 일층 끄트머리에 세들어 산다. 지하철에서 내려 한참 숲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여름이 오면 근처 호수에서 헤엄치며 물 위에 누워있어 볼 참이다. 벌써 수영복도 마련했다. 하지만 독일의 사월은 잔인할 정도로 변덕스럽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묵묵히 지나간다. 내 방에서는 차 소리,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창을 열면 숲의 바람소리, 새소리, 달아나지도 않는 다람쥐가 있다. 며칠 전엔 여우도 봤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이 너무 푸르러 여기가 어딘지 아직도 헷갈리지만, 나날이 새록새록 새순처럼 세상을 향해 기대하게 된다. 이 낯선 도시에서 최초로 대하는 매일 아침의 고요와 함께.

▌한국인은 시를 좋아하나요?

드디어 5월 2일. 특강하는 날이다.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문학을 이야기해야 한다. 독일어나 영어로 말해야 하는 줄 알고 하루 이틀 밤을 샜는데 발표 전날 김은희 교수가 나를 불러 어느 나라 말로 발표할 거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 어느 정

도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말로 강연을 하면 된다고 했다. 중간 중간에 번역해줄 사람이 있다면서.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형편없는 외국어 실력이 하마터면 탄로 날 뻔했는데……

'다문화 사회 속의 한국 현대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중간 중간에 나오는 시들을 학생들에게 낭송해보라고 시켰다. 독일인으로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발음은 거의 정확했고 시를 이해하는 능력도 예상보다 뛰어났다. 두 시간 가까이 강연이 이어진 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한국학과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비중 있게 공부하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한국문화 전반을 공부하기 때문에 사회학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다. 가령, 많은 터키인이 이민하여 정착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과 한국 내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의 정착 과정을 비교하며 그 정책의 문제점을 질문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보다 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당신은 왜 시를 쓰나요?" 같은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받겠다고 사회를 맡은 선생님이 말했을 때, 한 여학생이 수줍어하며 손을 들었다. 내가 입은 한복이 무척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그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시를 많이 읽나요?" 나는 시간을 좀 벌려는 의도로 되물었다. "독일 사람들은 시를 많이 읽지 않나요? 알렉스 양은 어떤 시인을 좋아하세요?" 예쁜 알렉스의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저는 괴테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독일에는 요즘 시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시를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시인을 직접 뵌 것도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알렉스는 내가 사랑하게 된 아이다. 내가 입국하던 날 테겔공항으로 나를 마중 온 여리고 여린 외모의 학생이다. 그녀는 요즘 학사졸업논문을 쓰고 있어 정신없이 바쁜데도 학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현재는 나를 도와주는 일이 알렉스의 아르바이트인데 내일은 둘이서 외국인등기소에 갔다가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녀의 엄마는 김치를 잘 담그는 한국인이다. 70년대 후반 독일 파견 간호사로 와서 독일인 아빠와 결혼했다. 알렉스는 부모님이 사는 쾰른에서 베를린으로 유학 왔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혼혈아라는 게 너무 싫었고 사춘기 때는 단한마디도 듣기 싫었던 언어를, 엄마 나라말을 배우느라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다고 했다.



▲ 특강을 마친 후,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입구에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필자(앞줄 가운데) 오른쪽에 선 친구가 알렉산드라 바우어(애칭은 알렉스).

강연이 끝난 후 나는 학생들에게 독일 현역 시인들의 책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시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긴 내가 너덧 명한테만 확인한 바를 통해 베를린에서 시를 읽는 학생 인구를 운운하기는 어려울 테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들려준 대답은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한국에서는 서점마다 시집 코너가 따로 있고 많은 사람들은 시집을 사서 읽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시집을 선물한다고 말했던 게 사실일까?(다음 호에 2편이 계속됩니다.)

베를린과 나(2편)

(아르코 웹진 210호)

▌메이데이



▲ "여기는 우리들의 작은 집이에요"라고 적힌 플래카드 아래에서, 이 문장은 Ton Stein Scherben이 부른 노래 'Rauchhaus Song'의 가사 일부이기도 하다.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여기 싣는 사진들은 길 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찍은 게 대부분이라 이처럼 흔들리기도 한다.

식량이 바닥났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 봉지는 털어먹은 지 오래라 마지막으로 남은 라면을 끓여 늦은 점심을 먹는다. 총각무김치가 친구보다 더 그립다. 어제 물을 받아 둔 주전자 바닥에 흰 석회 더께가 꽤 깔려 있다. 집 주인이 수돗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며칠째 그냥 받아 마셨는데 아무래도 찝찝하다. 물과 빵, 치즈, 햄, 토마토 등 몇 가지 먹을 것도 사고 바람이나 쐴 겸 밖으로 나왔다. 숲길을 한참 걸어 큰 길에 나와 보니 빵집과 슈퍼,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상점들의 문이 닫혀 있다. 오늘이 공휴일인 걸 깜빡했구나. 문득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먹었던 케밥이 생각나서 크로이츠베르크로 가는 지하철을 탄다. 그 지역엔 터키가게가 몰려있고 아시아마트도 있다. 휴일에도 문 여는 케밥집이 여럿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모여 생활하며 창작하는 공동건물이 있다. 과거 베를린 장벽에 인접한 주립병원이 버려진 후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예술가와 도시빈민, 외국에서 온 작가들이 거기 하나 둘 모여 무단 점거하여 스콰트를 이룬 것이다. 지지난 주 그곳을 급히 지나쳐 가며 벽면에 넘치도록 그려진 그라피티를 흘낏 쳐다볼 때 깨진 유리창 안쪽에서 울려나오던 하드 록 음악 소리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꼭 다시 가고 싶어졌다.

크로이츠베르크에 가까워질수록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빽빽해져 숨쉬기조차 어렵다. 베를린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출퇴근 시간에도 앉을 자리가 있어 사람들은 여유롭게 책이나 신문을 읽곤 한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럴까? 홍대 앞에서 사람들에 떠밀리며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던 그날이 생각난다. 고트부서토어(Kottbustor) 역에 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이동하고 있다. 며칠 내내 쌀쌀한 초가을 날씨였는데 오늘은 햇볕이 너무나 달콤하게 피부에 스며드는 날이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모여들었나? 이런 날씨엔 티어가르텐이나 마우어파크에 가서 거의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긴다고 들었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인데 연로하고 중후한 어르신도 있고 히피풍의 소년소녀와 유모차를 밀며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저기 경찰차 행렬은 뭐며 총을 든 경찰은 왜 웃으며 나를 쳐다보나? 하물며 그는 사진을 찍으려는 내 옆에 다가와 장난스럽게 카메라를 만져본다. 나는 무서움을 감춘 채 그에게 함께 사진 찍자고 말해본다.



▲ "경찰 아저씨! 우리를 진압하러 오셨어요?"



노동절 집회 거리는 낮 동안 마치 축제장과 같다. ▲

베를린에는 20년 넘게 매년 열리는 메이데이 행사가 있다더니, 오늘 여기서 어떤 집회가 있으려나 보다. 이 지역이 1920년대만 해도 유대인들이 대거 거주했던 곳으로 반체제 영향이 강한 편이라 여기서 집회를 하는 걸까? 터키인, 아랍인,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저렴한 레스토랑과 과일시장, 공장을 개조한 멋진 클럽이나 바가 모여 있는 골목 어귀를 돌며 나는 약간 긴장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장한 모습이나 데모를 할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나는 축제일 같은 분위기다. 길거리 곳곳에 케밥과 꼬치, 맥주를 파는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저기 작은 무대를 중심으로 행인들이 몰려 춤추며 노래 부른다. 펑크족 스타일의 가수를 보기 위해 미니스커트의 여자가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의 어깨에 걸터앉아 한 손에 든 맥주병을 흔들고 있다. 나는 사람들의 파도에 떠밀려 두세 시간 동안 그 일대를 흐르듯 걸어 다녔다. 날이 점점 어두워진다. 마리안넨플라츠(Mariannenplatz) 사거리에서 몇몇 사람이 소리 지른다. 시간당 임금을 8유로로 보장하라는 내용인 것 같다. 8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1만 2천 원 정도 되나? 홍대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내 제자 녀석 시간당 임금은 4천 5백 원 남짓인데…… 해가 지고 주변이 더 어두워지면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 어떤 조짐이 서서히 보인다.

▌종이배 접어 평화의 바다로

아스콜드(Askold Hitzler)가 전화를 한다. 오늘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 Tor)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좀 바쁘다고 했다. 왜냐면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아버지가 국제전화를 걸어 잘 지내냐고 물으셨고 나는 왜 비싼 전화를 하셨냐며 묻는 말씀에 최대한 짧게 대답한 후 끊었다. 그리곤 곧장 후회가 되어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꼭 만나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나는 아직 베를린 시내 지리를 몰라서 거길 어떻게 찾아가는지 짜증스레 꼬치꼬치 물었다. 미국 대사관 옆이라고 훔볼트대학도 모르냐고, 통일독일의 상징인 개선문이 있다고 베를린에서 가장 번화한 곳일 거라고 찾아가는 길과 내리는 역까

지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스콜드는 메이데이에 크로이츠베르크 길거리에서 플라스틱 잔으로 파는 맥주를 사려고 호주머니를 뒤져 1유로를 찾고 있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건 독일인 남자이다. 한국사회에 관심이 많은 그냥 노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칼럼리스트이자 재독 코리아협의회 활동가였다. 술 한 방울 입에도 못 대는 독일인이라니.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 거리에는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드리 보리수가 도로를 따라 쭉 우거져있다. 연분홍색 거대한 꽃 등불을 매단 보리수 아래를 걸어가며 베를린에서 가장 예쁜 거리 이름이 운터덴린덴(직역하면, 보리수 아래)이라고 생각한다. 이 길은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마르크스-엥겔스 광장까지 이어진다. 희미하던 꽹과리, 북, 장구 등의 악기 소리가 차츰 강해지며 거리를 가득 메운다. 저만치 개선문 아래 광장에서 사물놀이패가 신나게 놀고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가가고 내 발걸음도 바빠진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우연히 들른 관광객, 독일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 청춘에 간호사 혹은 광부로 와서 지금은 늙어버린 어르신들, 외국 사람들 등등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다.



▲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 Tor) 앞에서 열린 평화집회 풍경

그들은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평화집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나한테도 노란색 도화지를 건네주며 종이배를 접어보라고 한다. 땅바닥에는 아주 커다란 흰 천이 깔려있고 거기엔 세계지도가 정성스레 그려져 있다. 그 지도 그림의 오대양 위에 종이배를 띄우는 소박하고 재밌는 작업을 하는 거였다. 나는 환한 태양 아래 어린애처럼 주저앉아 종이배 접는 일에 몰두한다. 누군가 다가와 나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도 좋으냐고 묻는다. 나는 마치 첫 키스를 기다리는 소녀처럼 눈을 감고 그에게 얼굴을 맡긴다. 보리수를 타고 흘러온 바람이 내 얼굴을 적신다. 그는 내 얼굴에 평화를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강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반대하는 그림이라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이 멀고 낯선 곳에서 제주도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 강정을 생각한다. 몇 달 전 들러본 곳이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 내 얼굴은 얇은 도화지처럼 자꾸 구겨지고 아마추어 화가는 붓을 든 채 땀 흘리며 안절부절 못한다.(다음 호에 3편이 계속됩니다.)

베를린과 나(3편)

(아르코 웹진 211호)

▌또 다른 자유로부터의 도피

여기 사과가 있다. 붉은 사과들, 주방 창턱에 화분처럼 배열해 놓고 그윽이 바라보기만 하던 사과, 로열 갈라(ROYAL GALA 4173)라고 써진 파란 스티커가 사과에 장식처럼 붙어있다. 더 시들기 전에 하나를 닦아 한입 깨문다. 허수경 선생이 준 사과인데…… 나는 뮌스터 근교에 있는 선생 집에 며칠 머물렀다. 도서관처럼 넓은 이층 서재에서 사다리 놓고 책을 뽑아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함께 물결치는 밀밭 길을 산책하다 비를 맞기도 했다. 선생이 만들어준 빠이야는 내가 지금까지 먹어 본 최고의 요리였다. 월계수 잎과 사프란 가루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베를린으로 떠나오던 날, 선생은 새벽에 깨어 직접 만든 쇠고기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등 갖은 밑반찬이 든 찬합을 싸들고 버스정류소까지 따라 나왔다. 무겁고 냄새나서 싫다며 내젓는 내 손에 사과가 든 봉지까지 쥐어주었다.



▲ 허수경 시인의 집 문 앞에서



▲ 허수경 시인과 둘러본 알텐베르그 장터

학교 근처 레버(REWE)슈퍼에 가도 사과가 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사과가 있다. 핑크레이디, 요나골드, 그라니 스미스 등 십여 종의 사과가 있어 나는 뭘 골라야 할 지 모른다. 생수의 종류도 수십 가지인데 우선 탄산이 든 물을 살 지 일반적으로 마시던 물을 사야 할 지 난감하다. 빵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은가. 신호가 오는데 참을만한 상태인지 50센트 정도의 화장실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지금 당장 볼일을 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생리적 욕구 조절에 훈련이 덜 된 나로서는 자주 앞이 깜깜하다. 나는 길거리에 서서 오줌 마려운 어린애처럼 두리번거린다. 신호등 옆에 두 사람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포옹하고 있다. 아! 내가 어딜 가는 중이었더라?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곳으로 안전해 보이는 쪽으로 상식적인 방향으로 제도와 규범 속으로 나는 가고 있었나? 뭘 사서 점심을 해결할까 하는 이 사소한 선택도 성가셔지는 나는 이 무한한 선택의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진다.

점심은 주로 학교식당, 멘자(MENSA)에서 먹는다. 여기 음식 값은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훨

씬 싸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가격의 차등제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스파게티에 샐러드 한 접시를 떠서 담아도 학생의 경우는 2유로 99센트라면 연구원은 그 두 배, 교수는 그 세 배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게 된다. 각종 세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

베를린에 와서도 나는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매일 학교에 나온다. 베를린자유대학 파견 작가라고 누가 일일이 출결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꼬박꼬박 출근하니까 교수들이 파리, 런던, 이스탄불에도 가보라며 정보를 알려주는데 나는 초등학교부터 근 30년간 끌려 다니다시피 한 지긋지긋한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교 울타리에 인이 박힌 것 같다. 내 날개는 새장인가? 유쾌한 노마디스트, 나는 못 될 것 같다. 한국학연구소엔 내가 열쇠를 가진 연구실이 있다. 비록 옥탑방이라 비스듬한 천장에 이마를 부딪쳐 멍이 여러 번 들기도 하지만 거기 가면 인터넷도 가능하고 책 읽다가 창밖을 보면 흐린 날씨에도 플라타너스 우듬지가 훤히 보인다. 나는 스스로 새장을 잠근다. 멍하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하는 날이 허다하고 종종 엎드려서 잠들기도 한다. 아늑하고 따뜻해서 숨어있기 딱 좋은 방이다. 보름쯤 전부터는 김혜정 작가와 함께 그 방을 쓰니까 책 읽는 시간보다 잡담하는 시간이 더 많다. 한번은 연구소 지하 주방에서 김치찌개도 끓여 먹었다. '사랑은 위(胃)를 통해 온다'(Die Liebe geht durch den Magen)는 독일 속담을 실천하려는 듯 연구소 가득 냄새를 풍기며 오가는 외국 선생들에게도 먹어보라 권했다.

지난 주말엔 그 주방에서 잡채와 샌드위치도 만들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열리는 한국학연구소 축제일이었다. 음식도 판매하고 행사 입장료도 받는 특이한 방식의 축제였는데 나는 종일 분주했다. 연구소 정원에서는 사물놀이와 K팝 공연이 있었고 실내에서는 제1회 한국어말하기대회도 진행되었다, 독일 전역의 대학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그 축제일 며칠 전부터 나는 학생들의 연극 지도를 했는데, 별로 하는 일 없이 어슬렁거리며 심진아라는 학생이 이미 써놓은 대본의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배우들의 발음 교정을 도와주었다. 독일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이 한국말로 연극하는 게 신통하고 재밌었다. 그러다가 공연 하루 전날 한 학생이 덜컥 불참통보를 해왔다. 샨나라는 연출가 친구와 다투었던 그 학생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두절해 버렸다. "김이듬 씨가 대신해주면 안 될까요?" 경기심판과 결혼식 주례를 하는 목사, 1인 2역이라 긴 대사를 하루 만에 외울 사람이 없다며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축제일 무대에서 나는 세 번째 막에 선 추리닝바람으로 호루라기를 불다 내려왔고 마지막 막에서는 검정색 슈트로 갈아입고 긴 머리칼을 검은 모자 안에 숨긴 후 펜으로 구레나룻을 잔뜩 그린 후 등장하여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나름 남장이 잘 어울렸다. 내 정체성을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학생들이 나를 김이듬 씨라고 부르는 게 참 좋고 학생도 선생도 아닌 게 좋았다. 봄도 여름도 아닌 계절에 어스름이 넘치는 시간의 그 우



▲ 연극이 끝난 후

발적인 상황이 좋았다.

약속 시간에 맞춰 멘자 입구로 다니엘라가 왔다. 다니엘라는 타할레스 공연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다. 타할레스는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로 예술가들의 스콰트이다. 여행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 내실은 좀 허술해 보였다. 그라피티로 도배한 건물 내부에는 조잡한 장신구들과 옷가지, 엽서 등을 파는 가게가 층층마다 있었고 팔려고 급하게 그린 듯한 그림들에는 그 액수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그래도 2층 공연장에서는 몇몇 연극인들이 무대 세팅을 해놓고 뭔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는데 관객석에 놓여있는 인형들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 인형들은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죽은 관객처럼 앉아있었다. 우리는 둘 다 타할레스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된 공통점이 있어 오늘 다시 만나기로 한 거였다. 그녀는 나한테 자신이 살고 있는 칼 막스 스트라세로 놀러 오라고 했다. 그러면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를 사주겠다며 맥도널드 세트메뉴 50퍼센트 할인쿠폰을 보여주었다. 7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였다. 고마운 말이었다. 여기서는 꽤 친한 친구 사이여도 각자 먹은 걸 각자 계산하지 않는가. 그러지 말고 베를린자유대학교 멘자에서 따뜻한 카레를 먹자고 내가 강권하여 그녀가 먼 길을 자전거 타고 온 거였다. “안젤로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와 다니엘라가 마주친 날, 우리는 타할레스 뒤뜰로 갔다. 철조망이 쳐져 있어 주차장 쪽으로 빙 둘러서 걸어갔다. 다니엘라는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타할레스 뒤쪽 넓은 공터가 다 개방되어 있었고 거기 작가들의 작업실과 카페가 많았다고 했다. 거기서 날마다 콘서트나 연극 공연, 파티가 벌어졌다고 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뒤뜰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안젤로 로콘테(Angelo Loconte)라는 사람이 서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설치미술 작가로 3년 전 타할레스에 입주했고 점점 위축되어가는 예술작업 분위기와 상업적인 건물로 변해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낮인데 그는 많이 취한 듯이 보였다. 자신은 이미 무척 노쇠했고 달리 갈 데가 없다고…… 그의 뒤로 작은 뜰에는 몇 그루 올리브 나무와 만발한 분홍 장미꽃도 보였다. 안젤로가 만든 작품은 꽤 많았다. 고철로 만든 닭과 고개를 푹 숙인 소녀, 철사로 만든 변기, 대패질하지 않아 표면이 거친 긴 의자…… 그리고 계속 뭔가 만드나 보다. 그러다가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철근 구조물은 오래 비바람을 맞은 것 같았다. 썩은 통나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빨간 페인트칠의 우체통처럼 생긴 상자가 세워져 있었다. 사진을 찍을 경우엔 1유로를 넣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잘 차려입은 노부부가 팔짱을 낀 채 서로 의지해 걷다가 그 상자를 쳐다보았다. 푸른 지폐를 그 안에 넣고는 미소를 띠며 지나갔다. 가난한 예술가에게 보이는 그들의 호의였을까? 안젤로는 우리에게 맥주 한 병씩을 내놓고는 자신의 흰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휘청휘청 걸어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창작물인 긴 의자에 누워 불편하게 잠을 청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가 만든 작품 속에서 쉴 수 있구나. 나는 안젤로의 명함을 꺼내본다. 그가 쓴 문장 하나. ‘Ich habe eine Idee.’ 그에게 전화를 하려다 말고 다니엘라와 나는 식판을 들고 긴 줄 뒤에 섰다.(다음 호에 4편이 계속됩니다.)

베를린과 나(4편)

(아르코 웹진 212호)

▌베를린 실감

"당신의 책에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요리나 음식을 좋아하세요?"

"호호호, 이제야 여기가 베를린이란 걸 실감하게 되네요. 만약 여기가 한국이라면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독자들은 제가 얼마나 요리와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유월 중순, 재독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낭독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리자와 조경란 작가가 한국어로 주고받은 대화 중 일부이다. 내가 돌아보니 리자는 곧 울음을 터트릴 것처럼 목덜미까지 새빨개져 있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문정희 시인과 황학주 시인 그리고 조경란 작가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을 읽었다, 그들은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들과 함께 비엔나와 튀빙겐에서 행사를 한 후 곧바로 베를린으로 와서 마지막 낭독회를 하고 다음 날 한국으로 가는 빡빡한 일정을 즐겁게 소화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교포들과 현지인들과 섞여 오랜만에 한국문학작품을 듣는 시간은 퍽 묘하고 낯선 감동을 주었다.

▌리자 이야기

리자를 처음 만난 건 베를린자유대학 강의실이었다. 우물쭈물 뭔가 말하는 내 코앞에 그녀는 도도하게 느껴지는 인상으로 앉아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리자가 왜 시인이 되었느냐고 질문해서 날 당황시켰다. 그다음 그녀를 본 건 5월 초 베를린 Haus der Kulturen de Welt의 티켓 창구 앞이었다. '한국영화의 오늘-부산국제영화제 영화제'란 타이틀로 한국단편영화들이 연일 상영되는 중이었다. 그녀는 〈종로의 기적〉을 보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녀〉나 〈하하하〉가 재밌는지 어떤 내용인지 내게 물었다. 그 며칠 후 나는 리자를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다시 보았다. 그녀는 강정마을과 연계된 평화집회를 위해 일찌감치 거기 와서 팸플릿을 나눠주는 등 일손을 돕고 있었다. 이후로도 그녀는 한국과 관련된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

호기심 많은 리자. 그녀는 하얀 피부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전형적인 독일 미인이다. 그런 그녀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고 대견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음식을 즐기고 한국문학을 좋아하며 한국의 정치사회에도 관심이 많다.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에서 석사 과정 공부를 마쳐가는데 한국에 가서 번역 공부를 하여 장차 한국문학번역가가 되는 게 그녀의 꿈이라고 한다. 동거하는 커플이 비일비재한 베를린에서 사랑 하나로 재학 중에 덜컥 결혼해 더 활발하게 사는 리자. 한국문화원에서 낭독회가 있던 그날,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에 지원했던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걸 알게 되어 지하철에서 찔끔 짜고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편을 찾아가 하소연한 후 한국작가들을 만나러 온 거였다. 그녀는 조경란 작가의 〈혀〉를 들고 있었다. 낭독회 후에 함께 포츠담플라츠 역 근처로 걸어갈 때 그녀는 내게 물었다. 조경란 작가가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냐고.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명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

▌영수 이야기

이번에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통과했다며 자랑하는 영수 씨. 순식간에 떨떠름하게 대꾸하는 영수 씨. 그는 독일국적의 한국인이다. 그의 부모는 1960년대에 광부와 간호사로 베를린에 왔다. 영수 씨는 삼십 대 중반이지만 이제 갓 대학 1학기 째인 새내기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에 입학하여 지금은 한국학연구소에서 조교 일까지 하고 있다. 성격을 종잡을 수 없는데 천진난만하게 웃을 때는 어린애 같고 계산이 철저한 걸 보면 한국 친구 같지가 않다. 내가 베를린에 와서 집을 구하지 못한 채 허둥댈 때 연구소 컴퓨터로 집 전세매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모로 알아봐 주었다. 감사의 표시로 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노트북 가방을 건넸다. 하지만 그 가방은 누가 봐도 경품으로 받은 티가 팍팍 나는 제품이었다. 영수 씨는 그 가방을 들고 살펴보더니, 이거 팔아도 5유로도 못 받겠다고 말하며 슬쩍 놓고 가버렸다. 다음날 나는 시내에 가서 칼라가 달린 파란 티셔츠를 사서 그에게 선물했다. 늘 똑같은 흰 러닝셔츠 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 게 맘 쓰이기도 했고. 새 티셔츠를 펼쳐보며 그가 잇몸을 드러내며 얼마나 천진하게 웃었는지…… 하지만 이후로 그가 입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성의를 무시하고 어디다 팔아먹은 게 아닌지 물어보고 싶지만 입이 안 떨어진다.



▲ 사진 찍으려니까 달려와 엉거주춤 서있는 사람, 그는 친절한 영수씨



▲ 한인식당에서 삼겹살 파티 후, 뿌잉뿌잉~. 왼쪽부터 산냐와 필자, 심진아

이곳 학과 학생들의 대다수는 독일인이지만 그중에는 한국인 2세도 더러 있다. 양친 중 한쪽이 한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거의 모두 광부 혹은 간호사로 독일 땅까지 와서 젊음을 바친 이들이다. 한국이 그립고 그립지만 막상 가보면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을 나는 여럿 만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내 손을 잡고 자신이 살아온 일흔 해를 구구절절 말하며 눈물짓기도 했다. 그가 자신의 얘기를 소설로 써보라고 했지만, 난 그럴 능력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림잡아 쓰는 건 또 다른 폭력이 될 것 같아 그럴 수 없다. 내가 편애하는 알렉산드라 바우어, 그녀의 엄마는 간호사로 온 한국인이고 아빠는 독일인이다. 데인도 같은 경우이고, 심진아의 아빠는 광부로 와서 모진 고생을 했다. 나는 그들의 부모보다 그 자녀들에게 더 관심이 간다. 각자의 피치 못할 사연들로 인해 조국을 떠났지만 이들 부모 세대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한 반면,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이국이거나 혼혈이었다. 여기서는 독일인 친구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말하는데 한국에 가면 외국인 취급을 한다며 한국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의 비슷

한 경험담을 쏟아놓는 아이들. 자신의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르는 시늉을 하며, 그렇지만 절반은 한국 사람인 걸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친구들. 원망스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이 성숙한 아이들 옆에서 나는 가만히 듣기나 하고 가끔 맞장구치며 심지어 위로를 받는다. 나는 내 새어머니에게 너무 심했다. 그런데 영수 씨는 어울리지 않고 멀찍이서 팔짱낀 채 우리를 쳐다본다. 그는 누구일까?

▌베를린을 실감할 때

혼자 맥주를 마시며 이어폰으로 한국음악을 듣는다. 어떤 날은 온종일 전화도 이메일도 없고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은 채 저녁을 맞는다. 오늘이 그런 날 중 하루다. 오늘인가 어젠가가 'Sommeranfang(여름시작일)'이라고 달력에 적혀 있었다. 달력을 넘겨 보니 가을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절을 정해 두는 나라에서 오늘의 날씨는 아주 흐리다. 바람이 분다. 맨발에 샌들이라 발끝이 시리다. 말이 여름의 첫날이지 늦가을처럼 음울하다. 집 - 집이라고 하자. 몇 달 살지 않을 방이지만 매일 광나게 쓸고 닦고 벽에 그림도 걸었다. 소파를 펼쳐 침대로 쓰는데 침대까지는 어쩔 수 없으나 방석을 접어 베는 게 불편해서 아예 분홍 베개까지 샀다. 내 옆방에 사는 소피는 언젠가 떠날 건데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요가 선생인데 이번 여름에 두 달간 일본여행을 갈 거라며 그사이 모든 물건을 고스란히 놓아둔 채 방을 세놓을 거라고 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포크나 담요, 컴퓨터 같은 걸 누가 좀 쓴들 무슨 문제냐며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나를 무슨 결벽증환자 보듯 한다. - 에 가려고 버스를 탄다.

거리가 무척 조용하다. 너무나 고요하다. 검은 추리닝 입은 사람이 조깅하고 있을 뿐. 버스 안에는 할머니 두 분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금세 내린다. 이참에 텅 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기로 한다. 버스는 나를 싣고 가로수 우거진 숲길을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40분 정도 달렸고 9시가 넘었는데 아직 훤하다. 반제(Wannsee)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저기가 그 유명한 호수구나. 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 호숫가에서 젊은 나이의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가 자살했다고 들었다. 그는 헤겔, 괴테 등과 동시대 작가인데 한국에서도 몇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관료들이 유대인 대학살 모의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모두들 호수에 빠져 죽기라도 한 것처럼 사방이 무섭도록 적막하다. 유령도시 같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냉정을 되찾는다. 왜 아무도 없는 거죠? 종점이라 휴식시간을 재고 있는 버스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지금 독일과 그리스가 축구경기를 하고 있잖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뿐일 거요.(다음 호에 5편이 계속됩니다.)



▲ 길거리나 지하철 여기저기 서있는 딸기가게. 바야흐로 딸기의 계절이다. 사과꽃 만발할 때 여기 왔는데 벌서 그 꽃들고 홀연히 지고.

베를린과 나(5편)

(아르코 웹진 213호)

▌적응할 만하면 끝나는 여행

드디어 비자가 나왔으니 찾아가라는 메일을 받았다. 등기소에 간 첫날은 헛걸음했다. 담당 직원이 월요일과 화요일엔 오전 근무만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을 깜빡한 거다.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사진을 보며 혼자서 쿡쿡 웃었다. 급히 지하철역에 있는 자동카메라 부스에 들어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범죄자나 노숙자가 자다가 막 깨어 찍은 것처럼 인상을 잔뜩 쓰고 있다.



▲ 헌책방에서 바라본 거리 풍경. 책방에는 한국소설이 딱 한 권 있다. 이호철의 <남에서 온 사람들> 독일어판. 거리엔 재즈페스티벌이 열리고 대낮에 비도 흩뿌리는데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몸을 흔들고 있다.



▲ 손에 손잡고, 베를린자유대학 파견 작가로 온 김혜정 소설가와 베를린 장벽 앞에서

딱, 딱딱…… 내가 발을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지하철 구내에 울려 퍼진다. 한쪽 굽이 빠져 못이 드러난 구두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한두 번 들렀던 헌책방 근처 구두수선가게가 언뜻 생각나서 내친김에 구두 굽을 박으러 가기로 했다. 베를린엔 벼룩시장도 많고 중고가게에서도 물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된다. 거기 옷들은 저울로 무게를 달아 파는데 블라우스 하나와 티셔츠 두 개를 2유로에 사기도 했다. 이 구두는 멜링담 중고가게에서 산 이탈리아 상품인데 살 때만 해도 말짱하고 앞코가 반질반질했다. 그런데 반나절 걷다 보니 굽이 사라졌다.

"이 구두 수선하려면 15유로를 지불해야 돼. 그래도 고치겠어?" 구두수선공이 묻는다. "난 이거 9유로에 샀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깎아주면 안 되겠어?" 구두 가죽 전체를 손질하고 굽 하나를 끼워야 한다는 그 수선공의 말을 듣지 않고 얼추 비슷한 굽으로 걸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요청하여 우리는 10유로로 수선료를 합의했다.

나는 이제 천연덕스레 물건 값을 흥정할 수 있고 어느 빵집 브레첼이 덜 짠지 안다. 물을 공짜로 주는 커피숍도 안다.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잡아주는 센스는 기본이고 살짝 부딪쳐도 '엔슐디궁'(Entschuldigung), 안 친해도 '취스!'(tschüs)라고 인사하는 게 입에 붙었다.

지하철 안에서 젊은 여자가 가슴을 내놓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거나 서서 허겁지겁 햄버거를 먹는 중년남성을 보아도 오죽했으면 싶고 아무 데서나 포옹하고 입 맞추는 사람들을 봐도 그러려니 한다. 학교 벤치에서 여자 무릎을 베고 누운 남자가 그녀의 머리칼을 만지는 걸 보면 입술을 삐죽거리며 유치한 것들, 그랬을 텐데 저런 게 내 로망이 아니었나 하는 선망과 독거노인처럼 사는 나날들을 체념하게 되었다. 거리에서 반도네온 악사나 기타리스트가 멋지게 연주하고 있어도 그냥 쓱 지나치게 되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가니까 귀국할 날이 가까웠다. 여기서 살아갈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비자도 나오고 나니…… 삶이라는 여행도 이런 것일까?

▌살아있다는 것은 조금씩 돌아간다는 말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베를톨트 브레히트 / 번역 김광규



▲ 강의 시간. 조교 이영수 씨가 찍어준 사진들 중 하나. 너무 심각한 표정의 사진들 뿐.

한국시를 번역해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김소월의 〈금잔디〉, 최승자의 〈未忘 혹은 備忘 8〉등의 시를 읽으며 거기 드러나는 '무덤'을, 누구나 떠올릴 거라 생각했던 그 고봉밥 같은 봉분을 학생들은 상상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왜 묘지를 산에 만드는가를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국의 '신춘문예'가 정말 특이하다며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던 바로 그 학생이다. 나는 문화의 차이 운운하였고 그 강의를 마친 후에 시내 중심가에 있다는 공동묘지를 찾아가 보았다.

프리드리히스트라세 전철역에 내려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걸어가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저명한 예술가와 철학자들의 묘지가 모여 있었다. 조용하게 격리된 장소가 아니라 큰 도로 옆에 누구나 드나들며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곳이었다. 예상보다 초라했고 무성의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라 하고 어떤 이는 유럽에서제일 인상적인 장소라고 말하는 곳. 브레히트와 헤겔, 한스 마이어 등이 묻혀 있는 베를린 도로테 공동묘지. 전혀 호화롭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아 각별한 느낌이 든다. 드문드문 산책하듯 걷는 사람들 그리고 검은 고양이뿐

묘지와 묘지 사이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았다. 불현듯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나, 싶었다. 멈칫 뒤를 돌아보는 저 시커먼 고양이나 나나 묘지를 어슬렁거리다가 배고프면 혼자 뭔가 뜯어먹기는 마찬가지. 집 근처 호수에서 헤엄칠 때도, 잔디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볼 때도, 달콤한 꽃향기가 코를 찌르고 햇살이 온몸으로 아득히 퍼져갈 때도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거. 귀신처럼 헛것처럼 혼자서 쿡쿡거리며 웃어봤자 뭐 하나 하는 기분. 스웨덴에 가는 길에 들르겠다며 메일을 보내 온 선생은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는데 갑가기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못 온다 하고, 자신이 여행 떠난 사이 엄마한테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나 혼자 가서 좋은 것 보고 그러면 뭐하나, 그런 것들이 내 눈에 제대로 들어올까, 그래서 결단코 이번 여행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셨는데…… 선생의 심정이 전염되었는지 주변을 살펴보게 된다. 막막하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내버려두고 온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 그 친구 귀싸대기를 올려붙이지 말 걸 그랬지. 속으로 가만히 집에 돌아갈 날짜를 헤아려본다.(끝)

터키 앙카라대 - 아나톨리아 고원을 부는 바람은 안카라에서 잠든다

(아르코 웹진 203호)

손 홍 규 (소설가)

안카라에 도착했을 무렵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아나톨리아 고원 지대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터키의 수도 안카라의 하늘은 인공적이라 할 만큼 푸르렀으며 이국에서 만난 소나무는 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탓인지 처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기후는 건조해서 먹다 남겨둔 과자가 며칠이 지나도 눅눅해지기는커녕 방금 포장을 뜯은 것처럼 바삭거리고 수돗물에는 석회가 섞여 설거지를 해 둔 그릇의 밑바닥에 앙금처럼 하얀 자국이 남는다. 우리에게는 흔히 부르카, 차도르 등으로 알려졌으나 터키어로 '바쉬 외르튜슈'라 일컫는 머릿수건을 쓴 여인들과 눈이 깊고 콧날이 날카로우며 콧수염을 기른 사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이들의 혈관으로 피톨 대신 아나톨리아 고원을 뒤덮은 억센 흙알갱이들이 흐를 것만 같다.



▲ 한국문학 특강을 하던 날 강의실에 모인 한국어문학과 학생과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교류 협정을 맺은 안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가 속한 인문대학 캠퍼스는 안카라대학 본부가 있는 탄도안 지역이 아니라 구도심 울루스와 신도심 크즐라이 사이에 자리잡은 스히예라는 지역에 있다. 내가 머무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보살펴 줄 한국어문학과 전임강사인 예심 페렌디지 선생에게 터키어로 'ANKARA'인데 왜 우리 한국인들은 '앙카라'라고 하느냐고 묻자 자신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는다. 발음대로 하면 '안카라'가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한다. 아마도 안카라의 옛 이름이 '안고라'였는데 영어식으로 '앙고라'라 불렸기에 안카라 역시 앙카라가 된 듯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나는 터키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도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카라'라고 부를 생각이다.

안카라에 도착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나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 버스를 타고 한국어문학과 연구실에 들렀다.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 앉았는데 창문 밖으로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고개를 내밀어 바라보니 크즐라이 빌딩숲 위로 피어오른 연기가 푸른 하늘로 스며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고 곧이어 출근한 예심 선생은 전화를 받느라 바쁘다. 방금 크즐라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예심 선생은 인터넷으로 테러 소식을 전하는 뉴스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테러범은 여자였다. 내가 뭐라고 외치는 거냐고 묻자 예심 선생이 인상을 찌푸

리며 말한다. '파시스트를 타도하자!' 그 뒤로 며칠 동안 내 귓가에는 경찰에게 붙잡힌 쿠르드족 여전사의 목쉰 소리가 윙윙거렸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이라크 국경 지대인 하카리라는 도시에서 터키 군인을 노린 대형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다시 얼마 뒤에는 쿠르드족이 인구의 대부분인 동부 도시 완(VAN)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들은 한국에도 알려져 몇몇 지인들이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안카라에 머무는 내게 그런 소식들은 머나먼 일처럼 여겨졌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온다. '터키 동부 일부(이란, 이라크, 시리아, 국경 인근)는 여행제한지역이니 이 지역은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를 볼 때 내가 터키에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뿐이다. 인구 오백만에 이르는 안카라는 광대하며 도시를 흐르는 삶은 견고하다. 이 도시에는 강이 없는 대신 사람들이 흐른다. 완이 고향이라는 쿠르드족 청년 이드리스 투란은 캠퍼스에서 나를 볼 때마다 환히 웃으며 '선생님'이라 인사를 한다. 내가 그에게 안카라 거리를 걷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쿠르드족을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당연하다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알아보느냐고 묻자 그는 '얼굴이 달라요.' 라고 대답한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든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다.



▲ 안카라 시내 중심에 있는 청동사슴상



▲ 안카라 성에서 바라본 안카라 북쪽 지역. 저 멀리 보이는 도시 외곽은 민둥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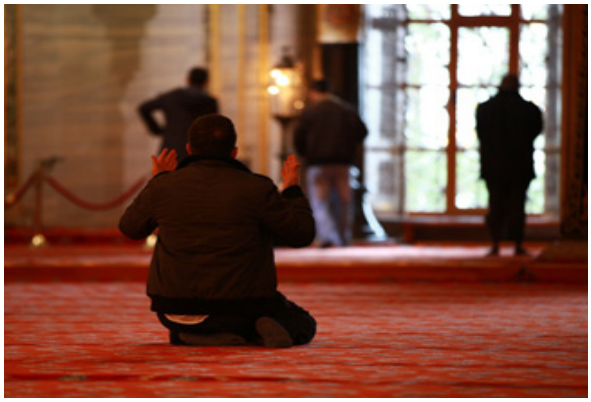
스히예는 교통의 요지다. 안카라 최대 번화가인 크즐라이의 입구이면서 안카라성과 아타튀르크동상이 있는 구도심 울루스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안카라를 관통하는 철도 역시 스히예를 지나고 두 개뿐인 지하철 노선 가운데 하나도 이곳을 지난다. 버스 환승지역인데다 대법원이 있어 인문대학 앞 인도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며 차도는 자동차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곳에 청동사슴상이 있다. 안카라 인근 하투샤 지역은 고대 히타이트제국의 수도였다. 그곳에서 발굴된 청동사슴상이 안카라 시의 상징물이다. 터키의 수도인 안카라의 상징물이 히타이트 제국의 유물이라는 점은 내게 기이하게 여겨진다. 셀축이나 오스만과 같은 투르크 유물이 아닌 탓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민족적 특수성이 아닌 그들이 발 딛고 선 대지에서 찾는 것 또한 어쩌면 유목민다운 혹은 제국을 경험한 사람들다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터키인 강사가 '안카라는 청동사슴상 남쪽과 북쪽으로 나뉜다.'는 말을 들려준다. 청동사슴상 남쪽은 최대 번화가인 크즐라이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과 부유층이 몰린 찬카야, 투날르 지역이 있고 북쪽인 구도심 울루스는 도시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게제콘두(빈민촌)이기 때문이다. 신도심은 활기가 넘친다. 번화한 거리를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오가고 노천카페마다 맥주를 마시며 축구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쇼핑을 하고 연인들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에 비해 구도심은 한적하다. 밤이 깊으면 인적이 끊기고 안카라성과 고대유물이 전시된 고고학박물관 때문에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자신들의 숙소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는다. 산을 점령한 빈민촌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그보다 더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갈탄을 때우는 연기가 어두운 하늘로 치솟는다. 그러나 터키어로 '자미'라 일컫는 이슬람사원에서 하루에 다섯 번씩 울려 퍼지는 에잔(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은 척박하지만 뜨거운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를 차별없이 뒤덮는다.

하지만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기란 어렵다. 기도용 깔개를 옆구리에 끼고 걷는 노인들은 시골에 가야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를 잘 지키지 않는다며 예심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일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곳은 도시잖아요.'



▲ 안카라 성과 주변의 빈민촌



▲ 자미(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머무는 동안 이슬람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쿠루반 바이람'이 지나갔다. 명절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기 위해 안카라 버스터미널에 갔던 나는 표를 구하지 못해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저마다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향으로 실어 줄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터미널의 풍경은 낯익다. 추석이나 설날 내가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임시버스표라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고 엉뚱한 승차장에 선 버스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고향으로 간다는 설렘과 흥분 그리고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깃든 얼굴들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고 버스가 뿜어내는 배기가스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어디가 고향이든 그들은 대부분 열 시간에서 열다섯 시간 동안 버스 여행을 할 것이었다. 광활한 영토가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 광활한 영토 어딘가에 방금 밀과 양파의 수확을 끝내고 갈고리처럼 휜 손으로 이마에 갓을 만들어 수도에서 귀향하는 피붙이를 태운 돌무쉬가 달려오는지를 살피는 늙은 농민들이 있을 것이다. 고개를 돌리면 숱한 고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묵묵히 증언하는 유물들이 보일 것이며 거기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시선만으로 수확하기도 할 것이다.

안카라는 수도답게 케말주의(속세주의라고도 한다. 터키의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의 사상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추구하고 서구화를 지향하는 주의이다)와 이슬람 근본주의가 여전히 치



▲ 안카라 인근 농촌에서 만난 코렐리(참전군인). 그는 내게 부산, 인천 두 단어를 말했다.

열하게 대결한다. 비교적 진보적인 대학으로 분류되는 안카라대학에서 학생들의 정치집회라도 열리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잠입해 칼부림이 일어난다고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신경 쓰이는 건 그들의 공통된 시선이다. 아시아라면 대부분 친(중국)이거나 자폰(일본)으로 아는 그들에게 코렐리(한국인)란 무척 낯선 인종이다. 그러나 코렐리는 그들 속에서도 오랫동안 거주한 이름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귀향한 터키 군인들을 '코렐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귀향 군인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아 코렐리는 '정신이상자'를 뜻하는 은어로 쓰이기도 했다. 한류 덕분에 코렐리라는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으로 기억하든 아직 나는 안카라에서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서 터키가 오랫동안 그러했듯이.

척박한 땅이어서 안카라를 둘러싼 구릉지대는 헐벗었다. 주택은 위태롭게 언덕 위에 자리잡았고 깎아지른 듯한 사면에는 풀 한 포기 없다. 도시 내부에 조성된 몇몇 공원과 가로수를 제외하면 수목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대부분 교목이며 관목이 드문 탓에 눈으로 보면 안카라는 고요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도시를 거닐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단단한 교목의 가지를 흔들지 못했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니 언덕 위로 달이 떠오르면 일그러지는 달빛을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그제야 깨닫는다. 바람이 흔들지 못한 것은 단단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뿌리 내린 투르크인들이었음을.

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 글감의 보고 사할린

(아르코 웹진 206호)

김 민 정 (극작가)



▲ 상공에서 본 꼬스샤코프 앞바다. 1945년 8월, 저 바다를 건너기 위해 울부짖었던 한인들. 고국으로 돌아갈 배를 기다리다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의 넋이 아직도 더 아래에 있다.

1890년 육로로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는 사할린을 '슬픔의 틈새'라 불렀다. 사형수나 죄수의 땅이었던 그곳에 민간인 최초의 방문이었으며 시베리아 철도가 놓이기 전이라 마차로 이동해가며 3개월여 만에 도착한 섬이었다. 러시아의 중심에서 보자면 그곳은 시베리아보다 더 먼 곳이며 유럽의 끝, 동양의 시작이었다. 1900년대 초반부터 남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 떠났다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의 후손이 있는 곳, 여전히 일본의 쿠릴섬 반환 문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곳, 긴 겨울과 눈 깜빡할 사이의 봄, 아름다운 여름이 있는 곳이 사할린이다.

러시아 사할린에 갈 거라고 하자 다들 왜 사할린에 가느냐고 물었다. 그것도 한겨울에. 사할린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들 첫 질문으로, 왜 사할린에 왔느냐고 물었다.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모범답안이 나왔다. 사할린에는 한인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고. 그들의 삶이 역사 아니겠냐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해 책에 푹 빠져 있던 나는 커서는 급기야 이야기 만들어 내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단단히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이번에는 이야기를 듣겠다고 평균기온 영하 30도인 사할린까지 가다니, 사람들의 표정은 '할 말 없음'이었다.

무뚝뚝한 러시아 경찰의 검문을 마치고 출구로 나오자 아는 얼굴이 보였다. 서울에서 본 적 있는 한국관 레스토랑 사장과 함께 생활을 도와줄 코디가 마중 나왔다. 차 안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고 바로 아파트를 구하러 떠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생경했지만, 사할린의 첫 느낌은 편안함이었다. 걱정했던 것보다 춥지 않다는 것과 아직은 한국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을까. 첫 번째 보러간 아파트에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했다. 이분들과 또 다른 아파트를 보러 가기에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 숙박비 지급, 주소와 전화번호, 인터넷 설치에 대한 안내 등.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고 나의 즐거운 사할린 생활을 기원하며 모두 돌아갔다. 정신차려보니 내 손에는 러시아어로 된 몇 장의 메모와 낯선 러시아 지폐, 혼자 남겨진 뒤에서야 내가 세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사할린에 온 것, 서울과 연락이 여의치 않고 이야기 나눌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알았다. 7시, 창문 앞 가로등이 켜졌다.

장 보는 일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풍설이 온다는 예고가 왔다. 風雪-눈바람. 그냥 눈이 내리겠거니 했다. 그러나 눈은 바람에 먼지 날리듯이 오기 시작하더니 열흘 내리 쉬지 않고 내렸다. 순식간에 길이 사라지고 밤새 집 앞에서 포크레인과 트럭으로 눈 치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요란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 새벽녘 커튼을 열고 한참동안 눈 치우는 것을 구경했다. 낮에는 사다리차가 건물지붕에서 내 다리길이보다 길고 굵게 맺힌 고드름을 떼어냈다. 게으른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일거리 많은 때가 눈 오는 겨울인 것 같았다.



▲ 풍설 오던 날, 눈에 갇히다.

눈은 그치지 않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파트 온수통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시간제로 쓰는 인터넷은 속도가 워낙 느려 몇몇 자료를 다운 받다 보니 끊겨버렸고, 요금을 충전해 쓰는 스마트폰은 돈 잡아먹는 귀신이었다. 며칠 동안 말 한 마디 안 하고 있다 보니 입센의 희곡을 소리 내어 읽는 내 목소리가 위로가 될 지경이었다. 야심차게 집어든 〈백년 동안의 고독〉은 제목만으로도 절절이 고독해 몇 페이지 읽다가 그 방대한 세월을 베고 잠이 들곤 했다.

눈이 그친 어느 날, 한인 1세대 할머니들을 만나러 한인교회에 갔다. 예배 때 휘 둘러보니 할머니는 딱 한 명뿐이었다. 폭설에 집밖으로 아예 나오지 못한 것이었다. 다음 주를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방심했는지 순식간에 빙판에 넘어지고 말았다. 이런. 망할.

침대에 떼굴떼굴 구르며 겨우 겉옷을 벗고 보니 부러진 데는 없는데 왼팔의 통증이 심했다. 숟가락만 들어도 통증이 왔다. 따냐 이모가 민간요법이라며 풀떼기를 팔에 칭칭 동여매 주었는데 풀독이 올라 가려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러시아는 긴 연휴 중이었다. 연말연시, 1월 7일인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마스까지. 밤새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새해를 그렇게 맞이한다고 한다.



▲ 좌로부터 시인 안드레이 양, 필자, 로만 허, 새고려신문사 배순신 사장

연휴 동안 한국에 다녀온 한국관 사장이 내 몰골을 보더니 한국관 직원 숙소로 이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사할린에서 경험한 것은 눈(雪)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고민은 사할린에 '올지도 모를' 지인들이었다. 며칠 고민을 하다 문자를 보냈다. 나 원룸으로 숙소를 옮기니 사할린에 오면 불편할 거야. 여긴 눈밖에 볼 것도 없다.

한인문화센터 건물 숙소로 이사를 하고 나니 쁠까예봐 거리에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한국교육

원 원장과 인사한 다음 날은 새고려신문사 사장을 소개 받고 인터뷰를 했다. 신문사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50년간 근무해 온 할머니 기자의 휴가를 위해 대신 교정교열을 보기로 했다. 다들 왜 이제야 나타났냐며 지나버린 한 달 반의 시간을 너무 안타까워했다. 배순신 사장은 안드레이 양, 로만 허 시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안드레이 양 선생은, 길 가는 누구든 붙잡고 애송시를 물었을 때 그분의 시가 항상 손꼽힐 정도로 사랑받는 시인이다. 기타를 들고 오신 로만 허 선생은 사할린에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될 때 자막번역을 하기도 했단다. 자작시를 불러주더니 내친김에 소월의 시도 연이어 노래로 불러주었다.

며칠 후엔 이들과 함께 사할린 한인 작가 주명수 화백의 작업실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주명수 화백은 러시아는 물론, 일본과 미국에 작품이 소개되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제 막 시작한 작업 이야기, 뉴욕 초청 전시 중에 찍었던 거리 사진과 망향의 사연이 담긴 그림 등에 대한 설명은 끝도 없었다. 디아스포라로 예술의 길을 걸어온 세월, 돌아가신 부모님, 달라진 세상, 고향이지만 고향이 아닌 그곳. 간간이 그분들의 눈동자가 젖어들었고 나는 고국에서 온 작가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환영받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할린 생활에 익숙해져 도서관이며 카페, 거리를 나다니는 일도 즐기게 되었다. 러시아 버스는 한국산 폐차 직전의 봉고차가 많다. 요금을 내는 것도 기사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이 올라탄 사람들이 건네건네 준 차비를 받아 기사에게 전달한다. 아진, 드바, 뜨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운전사는 거스름돈을 계산해 주고 그것은 또 사람들의 손으로 전달전달된다. 나는 버스만 타면 기사 뒷자리에 앉는 게 행운처럼 느껴졌다.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도 하고 마치 차장이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은 털부츠 바닥에 등산용 아이젠을 끼고 있는 낯선 발음의 쪼만한 여자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그럴 때마다 카레이츠, 이 버스 한국에서 온 고물차예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 소심한 충동이 생겼다.

한국으로 오기 마지막 주에는 한국어교실 수업참관을 했다. 이들에게는 한국 드라마가 한국을 알 수 있는 최신교과서라, 드라마를 보며 이해 안 갔던 점들을 궁금해 했다. 주부반에서는 여성의 날을 맞아 한바탕 음식잔치가 벌어지고 고급반에서 들은 사할린 한인들의 귀국문제와 한국정부의 대책 없는 대책은 서글픈 현실과 거리감을 갖게 했다. 우리에게는 잊혀져버린 사람들, 그들에게는 뼛속 깊이 묻은 고국. 한국에 돌아와 녹음해온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그곳을 생각한다. 그곳에 두고 온 환한 얼굴들과 목소리, 나는 아직도 사할린 눈 속에 서 있다.



▲ "형님, 잠깐 사할린 가서 일보고 바로 고국으로 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이것이 형님과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는 주명수 화백

쇄빙선 아라온호 창작 레지던스 - 아라온호 2012년 북극항해 참여기

(아르코 웹진 219호)

한 정 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창작거점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하나인 아라온호 승선 작가로 선정돼 북극항해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겐 행운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걱정이 더 많았다. 외부 세계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채 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40일간 지내야 된다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출발하기 전부터 체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며 준비했다. 그리고 부담이 큰 만큼 북극이라는 근접하기 힘든 자연경관을 체험하면서 하루 24시간 온전히 글만 쓰는데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설레며 떠날 날을 기다렸다.

2012년 7월 30일 아라온호 북극항해에 참여하는 연구원들과 나는 하와이를 거쳐 북극권의 알라스카 놈에 무사히 도착했다. 멀리 놈의 바닷가에는 먼저 인천을 출발한 아라온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나먼 북극해의 초입에서 만난 아라온호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놈은 부두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아라온호 같은 큰 배는 부두에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 바다에 정박해 있고 모든 출입은 헬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7월 31일 모든 연구원들과 짐을 다 실은 아라온호는 8월 1일 정오에 북극해를 향해 출발했다. 멀리 아스라이 멀어지는 알라스카 땅. 앞으로 40일 동안 보지 못할 문명세계였다. 아라온호는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미끄러지듯 달린다. 웅웅거리는 기관소리가 마치 심장소리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아라온호에서 가장 넓은 옥외공간인 헬기 데크로 나갔다. 하늘은 조금 흐리고 멀리 갈매기 같은 새 한 두 마리가 날아다닌다. 사방 천지에 보이는 거라곤 그냥 아득한 수평선과 그 위의 하늘, 그리고 바다뿐이다.



▲ 지치고 허기진 배를 안고 얼음 위에 올리간 북극곰

배가 출발하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안전교육과 비상시 퇴선훈련이 4시까지 이어졌다. 비상탈출 호흡구 사용법, 구명동의 및 수밀복 착용방법, 해상 추락사고 시 대처 요령 등과 비상시 구명정에 승선하는 방법. 그리고 작가라고 모든 것에서 우선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주어 나는 구명보트도 직접 시운전해 볼 수 있었다. 안전교육을 받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왈칵 들었다. 비상교육을 아무리 잘 받은들, 그런 사태가 안 생기는 게 최선이지. 문득,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이 망망한 바다를 벗 삼아 생사의 순간을 넘나들며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을 아버지. 아버지의 삶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이었구나. 나는 평생 배를 타고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먹먹해진 가슴을 안고 한동안 헬기 데크에서 서성거렸다.



▲ 북극항해에 참여한 승조원들과 연구원들의 소개와 인사



아라온호에서 이루어진 안전 교육 ▲

아라온호에 승선하고 브릿지의 한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행운이었다.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선장님과 승조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또 해야 할 것 같다. 사실, 브릿지라는 곳은 배의 안전운항을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곳인데 선장님과 사관들은 내 자리를 허락해 주었다. 나는 사방이 탁 트인 그곳에서 (자세는 좀 불편했지만, 다 좋을 수야 없지 않은가.) 항해 기간 내내 북극해의 풍경을 보면서 글을 쓸 수 있었다. 나는 아침 10시가 되면 브릿지에 올라가 노트북을 열어 오후 7시까지 글을 썼다. 그날그날의 날씨와 특별한 풍경이나 있었던 일, 스쳐지나가는 단상들을 담은 항해일지도 빠트리지 않았다. 짬짬이 배 안의 풍경을 구경하기도 하고,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을 스케치하기도 하고, 헬기 데크에 나가 차가운 북극바람을 맞으며 서성거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글을 쓰면서 보냈다. 아라온호에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의 연구원 및 아이스 캡틴, 헬기 조종사, 풀라베어 와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승선을 했는데 그들은 가끔 브릿지에 올라오면 한쪽에 내가 늘 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있는 게 흥미로웠던 모양이었다. 나중에는 그곳이 내 작업실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는 제일 멋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며 웃어 주었다.

이번 항해에서 연구원들과 승조원들의 일상을 살필 수 있었던 것도 내겐 흥미로운 일이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를 들여다본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그들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연구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작업하는 모습도 곁에서 지켜봐야 하니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춥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실험에도 밤잠을 잊은 채 열심이었고 나의 기웃거림을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고 설명해 주었다. 나의 멘토인 강성호 박사가 무심한 척 지켜보면서 눈에 띌 때마다 하나라도 더 설명해 주려고 애쓴 그 마음도 나는 잊을 수 없다. 선장과 승조원들의 친절한 배려가 없었다면 브릿지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기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앉아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내게 따끈한 커피를 가져다주고, 쉬었다 하라면서 초콜릿이나 비스킷을 슬그머니 놓고 가던 당직사관들. 그러고 보면 하나의 작품이 태어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모두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이다.

북극해의 얼어붙은 얼음 위에 내렸던 체험.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던 북극곰을 만났을 때의 그

경이로움. 바다를 가득 매운 채 흘러가던 맑고 깨끗한 아이스블루색의 얼음들. 대부분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내리던 날씨 가운데서도 잠깐씩 드러나던 눈부신 햇살과 푸른 하늘과 거친 북극해의 울렁거림까지.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고 체험이 되었다. 놈으로 귀선할 때쯤부터 사나워지기 시작한 바다는 사오일 동안 아주 심하게 울렁거렸다. 건장한 남자 연구원들도 멀미약을 먹고도 식사를 못하는 등 힘들어 했지만 나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버텨 오히려 민망하기도 했다. 승조원들까지 나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배 안에서는 모두가 자기분야의 일을 하느라 바쁘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건사해야 한다. 거기다 단조로운 일상을 견딜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배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도 지내기가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 북극해의 얼음 위에서 연구작업을 끝낸 뒤 모든 승조원과 연구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개인적인 성향이겠지만, 자세히 알되 막상 글을 쓸 때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그곳의 분위기나 느낌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게 더 중요하게 좌우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이다. 세종기지에서 내가 봤던 남극의 모습과 이곳에서 내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은 다음 작품에 분명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날 그날을 나는 간절히 꿈꾸며 기다린다. 강성호 박사와 연구원들, 그리고 아라온호 선장과 모든 승조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들의 항해 길에 신의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아르코 웹진 219호)

배 영 옥 (시인)

쿠바에서 만난 돈키호테

호세 마르띠 공항에 도착하면 누군가 비자를 들고 나와 있을 것이라 했다. 비행기를 빠져나오자마자 내 이름을 거꾸로 들고 웃고 있는 중년의 쿠바노를 발견했다. 그의 검은 손에서 A4 용지 크기의 종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배영옥이라는 한글 이름은 이상하리만치 낯설었다. 짐 가방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같은 비행기에서 내린 대머리 남자는 바로 시가를 피워 물었다. 시가 연기가 가뜩이나 불안한 내 머릿속을 헝클어뜨려 놓았다. 그때 로비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넓은 공항의 전기가 일시에 나가버렸다. 정전이었다. 어두컴컴한 공항 로비에 서서 나는 내가 진짜 쿠바에 왔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 나라의 관문인 공항의 정전이라니…. 쿠바에 머물면 머물수록 공항에서의 첫인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도 없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무정형의 나라, 쿠바에 나는 드디어 발을 디딘 것이었다.



▲ 아바나대학에 온 미국 뉴욕대학교 교환학생들. 미국인 학생과 쿠바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살사를 추고 있다.

영화나 책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던 쿠바는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로 대표되는 성공한 혁명의 나라였다. 또한 살사와 라틴음악이 흐르는 정열적인 나라였다.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기타와 북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여행객들도 쿠바인들도 스스럼없이 어울려 즐기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쿠바인 친구는 쿠바인들의 핏속에는 음악이 흐른다고 했다. 그리고 춤과 음악은 자기들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쿠바 사람들은 음악이 있는 곳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 곳에서나 춤을 추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생활 속으로 빠져드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 거대한 호세 마르띠 동상이 드넓은 혁명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 호세 마르띠의 시집들. 호세 마르띠는 시집 이외에 동화와 수많은 사상집들을 남겼다.

쿠바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은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아니라 호세 마르띠였다. 쿠바에 입국하려면 먼저 호세 마르띠 공항을 거쳐야 한다(물론 휴양의 도시 바라데로로 직항하는 노선도 있지만 대부분 호세 마르띠 공항으로 들어온다). 또한 전국의 학교마다 호세 마르띠 흉상과 동상이 있으며, 아바나 시내의 센트럴 공원에는 쿠바 전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호세 마르띠 동상을 볼 수 있다. 쿠바 전역에 얼마나 많은 호세 마르띠 동상이 있을까? 아마 세계 그 어떤 위인의 동상 숫자보다 많을 것 같았다. 호세 마르띠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관타나메라〉라는 서정적인 시를 쓴 쿠바의 유명한 시인이며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 나선 독립운동가다. 쿠바 지폐 1페소에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두 팔을 벌리고 말을 타는 호세 마르띠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다. 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자유의 시인이며, 혁명가이며 사상가인 호세 마르띠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다.

언젠가 호세 마르띠가 쿠바인들에게 왜 그리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 쿠바 시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호세 마르띠가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를 가졌으며 가장 근대적인 인간이었다고 했다. 계급과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쿠바인은 평등하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호세 마르띠는 제2차 독립전쟁 때 사망했는데 아마 일찍 죽지 않았다면 1959년 쿠바혁명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던 반인종주의 정책이 좀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다. 나는 아프리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분명한 검은 피부를 가진 시인의 모습을 보며 미겔 바르넷의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을 떠올렸다. 노예제와 독립운동과 혁명 등 격동하는 쿠바의 역사적 흐름을 온몸으로 살아온 자가 어찌 소설 속 인물뿐이었을까. 그에게도 만만찮은 자기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써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 쿠바 시인, 리또 라몬 아로체. 김수영의 시집과 필자의 시집 <뭇별이 총총> 번역본을 들고 있다.

채소가게 아저씨, 꽃을 파는 아주머니, 거리의 청소부,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허브농장의 할아버지, 순수한 눈동자의 아이들…. 쿠바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까사에서도, 거리에서도, 말레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놀랄 만큼 친절했다. 서로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자기감정에 솔직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털어놓는 쿠바인들에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다. 나는 짧은 스페인어와 보디랭귀지로 50년이 지난 혁명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혁명의 잔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쿠바인들은 그저 순간순간 즐기며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쿠바인들의 일상을 보며 나는 혁명은 과거의 유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섣부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되었다.

5월 1일 메이데이의 혁명광장은 쿠바 사람들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평소에는 몇몇 관광객들 모습을 빼고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한 혁명광장은 축제의 중심이 되어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날 들었던 그 뜨거운 함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사실 혁명의 정신은 이곳 사람들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다. 줄기를 내려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는 다시 나무의 몸통을 감싸고 자라는 하구에이나무처럼.

베다도 Calle 23(e/ K y L)에는 말레꼰을 바라보며 힘차게 말을 달리는 돈키호테 동상이 서 있다. 깡마른 돈키호테는 애마 로시난테를 타고 허공을 박차며 뛰어오르고 있다. 말레꼰을 넘어 돈키호테는 대체 어느 곳으로 달려가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쿠바라는 돈키호테는 비록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또 다른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불타는 두 눈을 크게 부라리고 혼연일체가 된 로시난테를 탄 채…….



▲ 베다도 Calle 23(3/K y L)에 있는 돈키호테의 동상. 돈키호테와 로시난테의 무용담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돈키호테 동상 아래에서 연인들은 키스를 하고, 청소부는 커다란 야자 잎으로 만든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고, 할머니들은 수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요가를 할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부 록

새로운 대지를 호흡하다*



* 시의 경우 작품 전문을 인용했으나 작가 분들께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집이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정식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면 정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이동성은 문학의 대지를 넓히고 그 경계를 허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응시하고 풍부하게 사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이주와 이동의 경험이 작품 속에서 어떤 불꽃을 피우고 바람을 일으키는지, 여기에서는 그 예가 될 만한 2000년대의 시와 소설 들을 임의로 몇 편 추려 소개할까 합니다. 이 새로운 대지로 함께 걸어들어가, 여러 시인 · 소설가들의 다양한 시선과 깊이를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외 1편

이시영

동몽골 고원의 얕은 여울 속을 꼬리를 툭툭 치며 거슬러오르는 경쾌한 송사리들
그러나 그 위의 협곡에는 거대한 망각의 해가 바짝 마른 혀를 적시며 기다리고 있다

- 이시영, 『바다호수』(문학동네, 2004) 중에서

주검

몽골고원에서 반질바닐 닳은 말뼈 하나를 주워들고 두드려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새로 태어난 송장메뚜기들이 작은 뿔눈들을 뜨고 풀밭 위로 툭툭 튀어올랐다.

- 이시영, 『아르갈의 향기』(시와시학사, 2005) 중에서

불가촉천민

- 인도 소풍

문인수

인도엔 불가촉천민이라는 밑바닥 계급이 있다.
생지옥, 검댕이 같은 저들과는 행여 옷깃도 닿지 말라 한다.

십일억 인구 중
다만 홀로 무표정한 사람들, 사내여
갠지스 강변 화장장에서도 묵묵히 일만 한다.

물에 주검을 씻기고 불에 망자를 놓아 멀리 풀어주면서
비로소 만나는 타인,
그러나 모두 죽은 후여서 역시 나눌 말 없겠다.

하루를 산 그 시꺼먼 죄, 재, 느린 물살에 쓸어넣고
그때마다 단독으로 흐르며 하늘을 본다. 수만 신을 섬기는 나라,
다음 세상에서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

사내여, 생의 허허벌판을 빠는 저 한 그루 굽은 나무처럼
아, 피가 희겠다. 스스로
외딴 사원이며 그 종인 몸, 어느 날 순교하겠다.

- 문인수, 『쉬!』(문학동네, 2006) 중에서

거위와 말했다

- 아이오와에서

최정례

로데오 구경하고 돌아오는데
버스에서 잠짠 졸았다
조그만 털 강아지가 내 품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웬 강아지냐고
우리말로 잠꼬대를 하는 순간
털 강아지는 다시 물병으로 변해버렸다.

우리말이 통할 리 없는 여기
입을 열면 외계인이 먼저 말을 한다
생각이 열렬할수록
말은 주문이 된다

강변을 걷다가
거위와 만났다
거위는 꽥꽥 소리쳤다
한국 거위 울음소리와 똑같았다
반가와서 다가섰더니
내 발을 콕콕 찍는 것이다

꽥꽥 그 말밖에 모르면서
그것도 자기네 말이라고
그지없이 건방진 대답을 하는 것이다

- 최정례, 『캥거루는 캥거루고 나는 나인데』(문학과지성, 2011) 중에서

물의 초대

문정희

나는 속아서 이곳에 왔다
물을 사랑하므로 기꺼이 속아버렸다

핏방울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고
물속에 거꾸로 처박히었다

나는 프시케이거나 메두사, 바리데기, 심청이
수궁(水宮)의 연꽃으로 다시 피어나야만 한다

물거품을 먹고 자란 바람들아
바다에 사는 격정들아
나를 물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누구의 계략이었을까

나는 불온한 딸
어찌하여 아무 데나 던져도 일어서는 물이었던가

나는 속아서 이곳에 왔지만
어디든 솟는 물은 나의 잉크, 출렁이는 상처, 으르렁거리는 표범이니
생애의 양식 충분하다
유배가 풀리더라도
결코 아는 길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 문정희, 『카르마의 바다』(문예중앙, 2012) 중에서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 갠지스 강가에서

나희덕

양수 속에서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길을 잃었다
밥을 떠넣고 아기를 낳고 한숨을 쉬고
시를 쓰고 버스를 기다린 것도 양수 속에서였다
버스는 나를 멀리 데려가곤 했지만
버스 차창에 맺힌 빗방울, 나를 적신
모든 물이 양수였다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자궁 속에서 몸 씻는 사람들
자궁 속에서 시체 태우는 사람들
흰옷 입은 그들 곁에 기웃거리는 개들

장작 값이 모자란 시체는 반쯤 태워져
개들의 차지가 되거나 나무토막에 묶여 떠돌았다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면서 더 깊은 강으로, 자신에게로
흘러들었다 기슭 저편에서 떠오른 해는
자궁 속을 붉게 비추어주었지만
배들은 기슭 저편에 닿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탯줄과도 같은 지상의 길들 어디선가 끊어지고
양수는 점점 핏빛이 되어갔다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
시체 태우는 연기 자궁 속에 자욱했다

– 나희덕, 『야생사과』(창비, 2009) 중에서

사막에 그린 얼굴 2008

허수경

사막에 대해서라면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태양이 질 무렵 사막에서 일어난 먼지는 태양과 함께 진다. 양과 염소들이 물을 찾으러 더이상 먼 길을 가지 못하는 것도 보았다. 물을 찾으러 나선 사람들이 겨우 얻은 삽으로 우물을 파는 것도 보았다.

오래전에 이곳에 살았던 베두인들은 도시로 가서 빈 양철통에 불을 피워 염소를 꼬챙이에 구워 판다. 불과 소금에 지져진 염소들이 메에, 하고 우는 것을 보던 도시의 태양은 사막의 태양에게로 가서 재가 묻은 편지를 전한다.

사막에는 모래에 덮인 무덤과 묻히지 못한 사람들과 코끼리들만이 살아간다. 이 코끼리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다. 소금을 찾기 위해 암벽에다 굴을 팠다는 코끼리들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소금을 먹이기 위해 몇십 마을을 걸어온 코끼리 어미는 굴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고 아이들만 굴의 바위벽을 핥으며 소금을 먹었다.

해저에도 사막이 있다고 한다. 해초가 덮인 바다 안에는 느리고 느린 모래만이 흐르고 거미게들이 휘적휘적 걸어다니고 있다. 이곳에는 태양도 없어, 무거운 바다 음에 갖힌 희미한 고래의 노래를 좀 들어봐, 연어 양식장에서 흘러나온 항생제 바닷물에 피부가 썩어가는 고래들이 부르는 노래를 좀 들어봐,

고래들은 해안으로 밀려나와 다시 땅으로 가고 싶다고 운다. 퇴화한 다리로는 걸을 수가 없어, 모래사막으로 변한 해안에는 죽음의 머리를 가진 작은 원숭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그때 어떤 인간의 애인이 나에게 걸어준 산호 목걸이 죽어가는 산호의 손들이 이렇게 내 목을 끌어안고 있다.

사막에 대해서 아는 바가 조금 있다. 아마도 작열하는 미래 황폐한 미래를 위해 이곳은 다른 곳보다 망각이 먼저 오고 가장 오래 머물고 망각의 혀를 사랑하여 느린 태양의 행진을 즐긴다. 오직 내비게이션만을 믿고 달리는 태양이 지배하는 사막의 나날을 위해 록커들이 불렀던 노래를 심장에 등꽃처럼 탄 턴테이블을 소금벽이 있는 동굴에 걸어두고 싶다. 어느 타임머신이 저 노래를 들었으면 한다. 그 노래는 오직 타임머신만의 미래이므로.

- 허수경,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문학동네, 2012) 중에서

타만 네가라*

김소연

지느러미 달고
바다 속을 떠돌아다니며
물고기들 손끝으로 만지다 놓아주던
여름이 있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떠올리지 않은 채
한쪽 끝과 한쪽 끝에
가난한 집 한 채가 놓인 길 위를
맨발로 걷기만 하던
여름이 있었고

소낙비를 맞아
뚝뚝 물이 떨어지는 옷을 입고
맑은 하늘이 다 말려줄 때까지

강 건너는 물소를 쳐다보며 앉아 있던
여름이 있었고

젖은 나뭇잎들 끌어 모아
한 잔 찻물을 끓이기 위해
한나절을 불 지피던
여름이 있었다

10월도 여름이었고
11월도 여름이었고
12월도 여름이었으나

눈 뜨면 봄이었고
그늘 아래 가을이었고
꿈속은 겨울이었던
여름이었다

- 김소연, 『눈물이라는 뼈』(문학과지성사, 2009) 중에서

* 타만 네가라Taman Negara : 말레이시아 중부 지방 밀림 지대.

물 위의 집들

하재연

오늘 있던 마을이 내일이 되면
사라지는 건 어째서일까?
누군가 훔쳐가버린 집들이 돋아나려면
오래 오래 노를 저어야 한다

물고기들이 다치지 않게
노를 저어 학교에 가는 까만 소녀들

소녀들의 빛나는 머리 갈래 사이
나나너너 와우오
회초리 소리 휘파람 소리

바구니마다 가득한 물고기를 밟으면
반짝거리는 내장들의 신선한 냄새
여기는 사라진 마을의 피에스타

브라운 신부님에게도 한 그릇의 쌀밥이
집을 잃은 달팽이에게도 한 마의 흰 광목이
필요하다

자정의 채플 시간에 졸고 있는
작고 작은 소녀들을 위해

호숫물은 일억만 년 전부터 흔들려왔지
쓰레기는 밑바닥부터 냄새를 피웠지
코랄 코랄 성경책처럼 펄럭이며
물고기들은 노래 불렀지

없어진 집들의 광경이 어디로 흘러갔다고는
시티 라이트, 도시의 불빛, 꽃 파는 소녀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 하재연, 『세계의 모든 해변처럼』(문학과지성사, 2012) 중에서

죽은 자의 노래로부터

신용목

태양이 종소리에 감겨 조금씩 꺼져갈 때 십자가에 찔려 금 가는 하늘에
박혀 있던 벽돌들 후드득 떨어지고
튀어오르는 어둠이 달리는 타이어 은빛 추위에 치여 창문마다 검은 피를 뿌릴 때

나는 죽은 자의 메아리를 잘라왔다 불탄 구름이 흐린 재로 흩날리는 광장에서
목을 잃은 혀가
부르는 노래 시체의 목소리 속을 떠도는 바람의 목에 걸어주는 긴 머플러

녹빛 동상의 입에서 쏟아지는 무용담과 장검이 찌르고 있는 칼집 속의 오랜 적막을

그리고 도심의 방 환한 무덤에 쌓여 있는 종이들 관짝의 먼지 낀 뚜껑을 열고
시체의 배 속에 남아 있는 밥알을 씹는다
얼굴에 어둠을 묻힌 채 이제부터 나는 뒷걸음질로만 앞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낮과 밤 사이에서 떨어져 나온 벽돌들로 시간의 양쪽 끝을 눌러놓고 길 잃은 메아리
위에 적혀 있는 노래를
몸의 불구덩이로 던져 넣는다 밤이 추위뿐인 영혼에게 검은 망토를 걸쳐줄 때

아무리 피워 올려도 구름이 되지 못하는 연기의 역사 그러나 인간이라는 거푸집에서 뜨거운 쇳물로 끓고 있는 피를

- 신용목, 『아무 날의 도시』(문학과지성사, 2012) 중에서

소설

김남일, 「자미원에는 어떻게 가는가」 중에서

시골 장터 같이 북적대던 진료소 앞마당이 갑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였다.

오전 내내 구슬땀을 흘리던 의사들까지 모두 밖으로 나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물론이고 성 진료소의 베트남인 간호진들도 지붕 그늘 안쪽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풍선처럼 부푼 호기심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에스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차례만 기다리던 환자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더더욱 길게 목을 뺀 채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국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은혜는 도무지 자신이 서지 않았다. 막이 오를 시작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대사조차 외지 못한 배우의 심정이랄까. 아니, 그런 초조감만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정작 눈앞에 펼쳐지는 판 속으로 선뜻 뛰어 들어갈 마음이 일지 않는 것. 은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서 있다는 느낌에 더욱 젖어들었다.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절차 문제를 들먹이며 위령제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인민위원회에서 진료팀의 성의에 대한 보답으로 어렵사리 마련해준 자리였다. 판에 박힌 말. 우리는 과거를 잊었어요. 이제는 미래를 향해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로서도 큰 모험입니다. 비록 약식으로 선보이는 자리이긴 했지만, 이 정도의 판조차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은혜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어쨌거나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공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줄은 몰랐다. 1980년대 저 지독했던 야만의 시절, 길거리든 대학 운동장이든 영결식장이든 어딘들 마다않고 달려갔던 은혜였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어간 숱한 젊은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그들의 억울한 넋을 도저히 그냥 저대로 파쇼의 하늘에 중음신으로 떠돌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붙게 된 이름이 이른바 '민주무당'. 그러나 지금 은혜는 아무리 정신을 집중해도 다가오지 않는 어떤 감응 때문에 입안이 바짝바짝 타올랐다.

제대로 구경 한번 한 적도 없으면서 은혜의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굿판을 준비한다고 뛰어다니는 몇 명 젊은 의사며 기공사들의 표정은 은혜보다도 훨씬 굳어 있었다.

"어떻게…… 잘 되겠어요?"

닥터 정이 곁에 다가와 조금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넋전은 어떻게?"

은혜는 대답 대신 실무적인 절차를 챙겼다.

"여기 그릇을 구해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럼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따 길닦음 때 천을 팽팽하게 잘 붙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산자들의 가망(감응)도 중요하고……."

"열심히들 하난고는 하겠지만, 솔직히 낯설어서……."

"굿이요?"

"아니, 여기 이런 데서 판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따지고 보면 참전군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라는 생각도 드는데……."

닥터 정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은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 김남일, 『산을 내려가는 법』(실천문학사, 2007), 288~290쪽.

김연수, 「케이 케이의 이름을 불러 봤어」 중에서

덥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이 끝난 뒤, 나는 잠을 설쳤다. 거기, 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잊을 만하면 창밖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 자세 그대로 팔을 뻗어봤지만, 케이케이의 몸에 닿지 않았다. 문득 케이케에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조심스레 케이케이를 불렀다. 혹시 케이케이가 거기 없을까봐. 하지만 케이케이는 어둠 속에서 벌거벗은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남쪽의 밤에는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불타고 있어서 하늘이 환했다. 나는 케이케이에게 침대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케이케이는 도시가 불타는 모습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끔찍하다며, 그런데 조금만 더 보다가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 불들이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케이케이는 왜 내게 오지 않았을까. 나는 다시 베개를 끌어안고 케이케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절대로 내 곁을 떠나는 일만은 안 된다는 말. 왜 그런 단어들을 중얼거렸는지 모르겠다. 한동안 나는 자다가 깨는 일이 두려워서 잠도 못 잘 정도였다.

아침에 케이케이이 집에서 나와 자동차를 몰고 17번가를 지나가는데, 케이케이가 말한 자카란다나무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나는 등뒤로 두 손을 결박당한 채 열맞춰 주차장에 엎드린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폭동을 틈타 상가를 약탈한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가장자리 쪽에 쓰러져 있던 몇몇은 일어서려고 몸을 버둥대고 있었다. 뒤집힌 풍뎅이들 같았다. 그 기억이 끔찍해, 이 년 뒤 다시 찾아갈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그 드럭스토어를 이용하지 않았다. 다시 찾아간 건 케이케이가 병상에 누워 있던 날들 중 하루였다. 그때까지도 나무 밑에 그 멕시코 여인이 서 있으리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고, 또 예상대로 여인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자카란다나무는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꽃을 잔뜩 매달고 선 나무를 올려다봤다. 그게 푸른빛이었는지 보랏빛이었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건 그 나무 아래에서 내가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다. 케이케이는 착한 일을 했잖아요. 난생처음 멕시코 여자에게 돈도 줬잖아요. 당신이 진짜 구주라면…… 평소에 기도 따위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그게 옳은 기도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따금 꽃잎이 바람에 하나둘 흩날렸다. 십 분쯤 그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건 너무 짧은 시간이었을까? 며칠 뒤, 케이케이는 죽었다.

물론 나는 케이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케이케이의 병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나였으니까.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가족을 부둥켜안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나오던데, 처음 머리통이 수박처럼 부풀어오른 케이케이를 봤을 때,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형향 때문이었다. 혹시 내 사소한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부둥켜안기라도 할 걸 그랬다. 케이케이는 며칠에 걸쳐서 이삿짐을 하나둘 나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상한 이웃처럼 천천히, 하지만 막상 마지막 숨결을 내뿜는 순간에는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갑작스레 죽었다. 죽는 순간까지도 케이케이는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내가 수없이 그 귀에다가 입을 대고 이름을 불렀는데도 말이다. 죽고 나서야 나는 케이케이의 진짜 이름이 '키준 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여전히 그 이름은 낯설다. 키준. 이제 내가 그 이름을 발음하면, 목

소리는 허공으로 풀려나간다.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다는 것만은 내게 두고두고 슬픔이 된다.

하지만 나는 케이케이가 왜 죽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나는 케이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만 알 뿐이었다. 도대체 왜 죽었을까? 생각 끝에 나는 그건 어쩌면 불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죽기 이 년 전 창가에 서서 바라봤던 폭동의 불들. 벌거벗은 채 혼자서 바라봤던 불들. 무섭다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던 불들. 나를 미신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한대도 상관없다. 어쨌든 내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으니까.

-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친구』(문동, 2009) 22~24쪽

김영하, 『검은 꽃』 중에서

이정이 도착한 곳은 메리다 서남쪽의 춘추쿠밀 농장이었다. 불꽃모양의 독특한 흰색 아치가 농장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 들어가면 여러 갈래의 좁은 레일이 농장 안쪽으로 뻗어 사라졌다. 레일은 커다란 창고 비슷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광활한 밭으로 숨어들어갔다. 이정이 본 그 커다란 창고는 에네켄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공장이었다. 하얀 옷을 입은 마야족들이 무개차 위에 에네켄 묶음을 실어 그것을 밀고 창고 안으로 계속 들어갔다. 그들은 무심한 얼굴로 새로 도착하는 조선인들을 쳐다보았다. 이정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자신의 일임을 깨달았다. 농장 안으로 걸어들어가면서도 그는 유심히 그들을 살폈다.

공장 안에서는 규칙적으로 철커덕 철커덕,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공장 입구에서 무개차에 실려온 에네켄의 묶음 수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에게 표를 나누어주는 모습만이 보였다. 살갗을 태워버릴 듯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이정과 35명의 조선인들은 레일을 따라 농장 안으로 계속 걸어들어갔다.

농장은 쿠바나 하와이의 플랜테이션과는 달랐다.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의 정신에 따라 설계된 흑인 노예 중심의 플랜테이션과는 달리 스페인 정복자들의 대농장(아시엔다)은 다분히 봉건적이었다. 스페인 본토에서 이주한 정복자들은 본토의 귀족들처럼 행세하길 원했다. 멋진 저택을 짓고 높은 담에 둘러싸여 하인과 노예들을 부리며 왕처럼 군림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자식들은 유럽으로 유학 보내고 주인들은 메리다나 멕시코시티의 쾌적한 부촌에서 생활하다가 가끔 들러 왕 노릇을 즐겼다.

이정의 무리는 거대한 저택 앞에서 멈추었다. 농장주인지 관리인인지 알 수 없는 사내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나타나 스페인 말로 짤막하게 뭔가를 전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은 웅장했다. 대리석과 석회로 치장된 전면은 농장주들이 에네켄으로 쌓은 부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한 창문과 베란다엔 빨간 꽃이 만발해 있었고 건물 곳곳에 금박을 입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행진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마른 먼지가 풀풀 날렸다. 마침내 그들은 조선의 작은 초가집을 연상시키는 마야의 전통주택 파하 앞에 멈추었다. 야자수잎 지붕에 통나무 골조, 흙과 풀을 이겨 바른 벽으로 이루어진 움막이었다. 바닥은 지표보다 조금 낮아 밤에는 시원했고 창은 없거나 아주 작았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흙바닥이었다. 첫 번째 가족이 들어가자 안에서 새끼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튀어나왔다. 마야인들은 그 안에서 밥도 짓고 잠도 자고 때로 가축도 길렀다고 한다.

가족들에겐 각각 하나씩의 파하가 지급되었고 이정과 같은 독신 남성들에겐 4명에 하나씩 파하가 주어졌다. 초가집을 닮은 파하에 어떤 이들은 별 거부감 없이 적응했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우울한 얼굴로 집 밖에 나와 담배를 피워무는 남자들이 많았다. 이정은 파하이 구석에서 침구를 찾아냈다. 마야인들이 아마카라 부르는 그물침대였다. 유카탄의 전통적인 이 침구는 훗날 카리브 해의 뱃사람들에 의해 해먹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어리둥절해 있는 동료들 앞에서 이정은 파하 안에 아마카를 매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마카 위에 올라앉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세 명의 동료들도 그를 따라 아마카를 매달았다. 그리고 나서 통성명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김영하, 『검은꽃』(문학동네, 2003), 100~102쪽.

김인숙, 「감옥의 뜰」 중에서

규상은 화선과 함께 안중근 의사가 갇혔던 여순감옥에 가본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옷을 가져다 좀 팔아볼까 하고 대련에서 의류무역으로 자리를 잡은 교포를 만나러 갔다가, 사업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며칠 밤을 새워 포커만 치다가, 마지막날이 되어서야 겨우 함께 갔던 화선을 위해 관광을 나섰다. 그날 그들은 대련의 항구를 보고, 게와 새우를 먹고, 바다표범이 있는 해양수족관을 구경하고, 일본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다. 그가 밤이고 낮이고 포커만 치고 있는 동안 혼자서 대련 시내를 돌아다녔던 화선은 대련보다는 여순엘 반번 가봐야겠다고 우겨댔다. 화선이 꼬박꼬박 뤼 이라고 발음하는 여순은 대련에서 한시간쯤 거리에 있었고, 도처에 전쟁유적지들이 있었으며, 러시아와 일본 점령기 당시의 감옥이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한 감옥이 외국인 관람 제한구역임을 알게 된 것은 정작 그 감옥 앞에 이르러서였다. 중국인이 아닌 그들이 감옥을 관람하려면 담당부서에서 발급받은 허가증이 있어야만 했다. 다행히도 그들을 태우고 갔던 택시시사가 마침 친절한 사람이었다. 택시기사가 그들을 대신해서 입장권을 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인인 것을 드러내는 언어'를 입속에다 감추어둔 채로 감옥 안을 한바퀴 돌 수 있었다.

규상은 그날 감옥의 뜰에 내리비추던 오후의 햇살이 빛이 아니라 소리로 여겨지던 것을 기억한다. 침묵보다 더 낮고 적요보다 더 깊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치 깊은 우물 속 숨죽인 소리 같았다. 며칠 동안의 노름에 찌들려 있던 몸이 홀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평일의 오후, 감옥에는 관람객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여자 안내원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문득 빛이 스며드는 층계를 걸어내려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통로를 걸었다. 그들이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때문에 안내원은 그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안내원도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거나,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다. 고요는 완강했다. 바닥이 철창으로 되어 있어 일층과 이층이 한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 옥사의 복도에서는, 보이는 것이라곤 아래위로, 앞으로 뒤로 감방뿐이었다. 감방은 비어 있었고, 어두웠고, 조용했다. 안내원은 정해진 순서대로, 옥사에서 고문실로, 그리고 사형실로 걸음을 옮겨갔다. 오래 전에 쓰였던 형틀이 그대로 놓여 있는 고문실은 눈이 아프도록 어두웠으나,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형실은 창마다 햇살이 스며들어왔다.

교수대도 교수대였지만, 그 밑바닥에 문처럼 생긴 구조물이 섬뜩했다. 교수대 밑바닥의 문 아래에는 사람의 몸집만한 나무통이 놓여 있었는데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그 문으로 떨어져내려 곧바로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집행자는 통째로 사형수를 들판에 내다버렸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규상은 교수대에 서서 바닥의 나무통을 내려다보았다. 몸속에서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 그 항아리 속으로 툭 떨어져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어리석은 환상이었다. 그의 몸속에 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쉽게 쑥 빠져, 툭 떨어져내리는 일은 없을 터이니.

감옥에는 안중근 의사가 갇혔던 방이 특별실로 전시되어 있었고, 안중근 의사에 대한 한글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다. 화선은 그곳에서 말을 입밖에 내서는 안된다는 것도 잊은 해 그 안내판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안중근 의사는 서른한살에 죽었

다. 안중근 의사는 서른살에 이등박문을 저격했다. 하얼삔역에서 그는 이등박문을 저격하고, 꼬레아 우라,라고 러시아 말로 조선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서른한살에 여순감옥에서 죽었다.

그날 밤 막비행기를 타고 하얼삔으로 돌아온 규상은 하얼삔역을 지나쳐가던 택시 안에서 화선에게 말했다. 만일에 내가 서른한살에 죽을 수 있었다면, 내 죽음도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을까?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잠에 빠져 있는 듯하던 화선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잠꼬대처럼 그의 말에 대답했다. 우린 오래 살 거예요. 그는 화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생에 남은 것이라곤 이제까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닌, 원통한 마음뿐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서른한살에 죽지 못한 것이다. 그가 백살까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서른한살에 죽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김인숙, 『그 여자의 자서전』(창비, 2005) 119~122쪽.

김재영, 「앵초」 중에서

성 바오로 성당 옆으로 난 길은 공사장 특유의 어수선함과 붐비는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쓸쓸하면서도 번잡하다. 굳은 표정의 추모객들.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라운드 제로 주변에 세워진 철책 너머에는 깊이 팬 땅이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잊고 무심한 햇빛 아래 누워 있다. 그 옆의 공사현장에선 철모를 쓴 인부들이 새 건물의 기초를 닦고 있다. 햇빛이 너무 강해 눈가에 물기가 고인다. 약시 탓이다. 약시가 진행되면서 햇빛 아래서는 이유없이 눈물이 난다. 색안경을 꺼내 쓴다. 눈물이 멈춘다. 연두색 바탕에 '2001년 9월 11일의 영웅들'이라고 씌어진 흰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낸씨, 대니얼, 마틴…… 민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헤롤드, 엘리자베스, 루이스…… 민욱은 이 나라에서 죽음조차 인정받지 못한 걸까. 하긴 그의 국적은 한국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인 희생자들 명단은 어디 있지? 중국이나 베트남, 이집트 따위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은? 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는다. 철책 맞은편, 사진을 걸어놓은 곳으로 다가간다. 사진 속에서 건물은 연기와 분진에 휩싸여 붕괴되고 있다. 단 7초 동안에 수백층이 무너져내리다니. 누군가 미리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뒤 테러를 유도했다는, 그럴듯하면서도 황당하게 들리는 9.11 미스터리설을 인터넷으로 본 기억이 난다. 모자를 쓴 사진 속 흑인 여성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운다. 어린 소년은 성조기와 꽃다발 사이에 추모의 편지를 끼우고 있다. 제복차림의 경관은 손바닥을 펴 눈썹 근처에 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슬픈 음악이 들린다. 음악은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된다. 공사장에서 먼지바람이 불어온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맨해튼 섬의 빌딩숲을 휘젓는다. 공물 실은 배를 크레타 섬으로 데려온 바람처럼 거칠고 집요하다. 이곳은 크레타 섬의 거대한 미궁인가. 정복당한 나라에서 공물로 실어온 선남선녀들을 먹고 사는 미노타우로스처럼 무역쎈터 빌딩은 세계인들을 한꺼번에 집어삼킨 건가. 민욱은 아리아드네의 실도 없이 미궁 속으로 들어간 숱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나.

성당 안은 좀더 경건한 추모 분위기다. 촛불들, 꽃들, 희생자 사진들, 편지들, 메씨지를 담은 물건들, 가슴아픈 사연들, 그리고 수많은 성조기와 성조기 무늬의 소품들…… 누군가 운다. 돌아보니 젊은 여자다.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한다. 나는 왜 이리 냉담한가. 왜 이리 무심한 표정으로 낯선 사람들 틈에 서 있나. 흐느껴 울어도 시원찮을 텐데. 바닥에 주저앉아 내 친구를 살려내라고 생떼를 써도 모자랄 만큼 억울한데. 넘치는 성조기 때문인가. 온통 미국인에 의한, 미국인을 위한, 미국인의 추모 분위기 탓인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하다 희생된 민욱과 같은 사람들,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마음씀도 찾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성당을 꼼꼼히 둘러본다. 눈에 띄지 않는다. 성당을 빠져나와 건물 뒤쪽에 마련된 공원묘지로 간다. 추모공원 한쪽에는 '희망의 종'이 매달려 있다. 미디어를 통해 본 기억이 난다. 부시를 비롯한 미국 정치가들이 해마다 구월이면 타종하던, 비장한 표정으로 악의 축을 선정하고 전쟁을 선포하던, 영광에 마음 들뜬 젊은이들을 불러모아 오래된 거짓말, 조국을 위해 죽는 건 감미롭고 지당하도다(윌프리드 오웬의 시구), 라고 외치던 그 장소, 그 종이다.

왜 민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느냐고 묻자 수화기 너머의 하윤이 맥없이 "외국인이잖아. 시신도 못 찾았고"라고 답한다. 외국인 추모제는 백악관에서 따로 마련한다던데 가본 적이 없고,

한인들이 마련하는 추모식도 비공식이라 잘 모르겠다면서. 죽음마저 국경이 갈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귀천이 나뉘는 현실에 마음이 울적하다. 하윤은 통화상태가 나쁘다며 내 이름을 연거푸 불러댄다. 겨우 응, 하고 답하자 다시 말을 잇는다.

"아직 곰을 해결하지 못했어. 공포탄이라도 쏠까 했는데 혹시 녀석이 놀라서 허둥대다가 정원을 망가뜨릴 것 같아서. 지금 앵초꽃이 한창이거든. 곰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갑자기 목이 멘다. 더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다. 하윤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고 싶다.

"화났구나? 미안해. 대신 보람이가 곧 그리로 갈 거야. 주말에는 맨해튼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에 다니는데 마침 끝날 시간이거든. 보람이 따라서 우리집으로 와. 여기서 추모식을 여는 건 어때? 마침 오늘이 남편 생일이니까."

하윤은 곰이 방금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좋아하며 전화를 끊는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 김재영, 『폭식』(창비, 2010), 52~55쪽

김형수, 『조드-가난한 성자들』 중에서

초원에도 법도가 있다. 유목민이라 함은 몸에 지닐 수 없는 것은 갖지 않아야 한다. 땅이나 하늘, 바람을 소유하려는 자는 세상을 훔치는 자인, 마땅히 벌을 받아야 옳다. 인간은 두발짐승이요, 발은 지닐 수 없는 것을 찾아다니라고 내려준 것이다. 그래서 유목민은 신발, 허리띠, 귀고리, 모자에 사치를 한다. 그런데 멋을 좀 아는 목자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호사를 부린다. 그들이 거느리는 발굽 짐승 다섯 종, 즉 오축(양, 영소, 소, 말, 낙타)에 투자하는 것이다. 잘 먹인 양이 살이 올라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는가. 그래서 양(羊)이 살찐 것[大]을 예쁘다[美]고 하게 된 것이다.

허나, 메넨 초원의 진짜 멋쟁이 나코 어른은 그보다도 더 높은 허영이 있었다. 그는 말을 오축에 넣지 않는다. 각별한 가치관 탓이다. 어떤 짐승이 말처럼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몸에 치장을 하는가. 말은 사람의 분리된 몸통이다. 고로, 말의 머리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함부로 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말이 원하는 주인을 가로막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말을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다. 화를 낼 때는 화를 삭이는 노래, 슬퍼할 때는 슬픔을 달래는 노래, 마음껏 뛰어야 할 때는 질주의 노래, 칭찬의 노래, 위로의 노래……. 마땅히, 남자와 여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듯이 사람과 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인간이 되고, 사람과 말이 만나면 유목민이 된다. 그래서 궁합이 안 맞는 말을 억지로 품는 건 추행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스스로 따르지 않는 말을 억지로 품는 건 추행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스스로 따르지 않는 말을 소위 유목민이라는 자가 강제로 취하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이며 초원에 대한 모독인가. 그런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회색의 새가 나코 어른의 이름이 계속 명예로워도 되는지를 실험하고 있었다.

두 해 전 겨울, 케레이트 족의 영지에서 말을 치는 안다(의형제를 맺은 친구)가 찾아왔다. 바이다라크 초원의 가난한 부부가 말을 맡아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것이다.

"자네 양 떼와 바꿔주면 되잖은가?"

했더니, 형편이 좀 특이한 경우라 한다.

"주인하고 멀리 떨어져야 하는 말이라."

남자가 몸이 불편하여 여자 혼자 기른 말인데, 신체 조건은 좋으나 조련사의 손길을 맛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야생마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렇다면 여자가 말을 잘 기른 건데, 유목민이 그런 말을 왜 포기하려 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한사코 산비탈을 오르내릴 수 있는 염소 떼와 바꿔달라고 사정하니, 원하는 것보다도 과분하게 쳐서 말 일곱 마리를 가져왔다. 한데, 말들이 어찌나 성깔이 드센지, 여섯 마리는 버릇을 들였어도 한 마리가 대책이 없었다. 그중에서 제일 어린 잿빛 말이 특히 기가 성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실날 같은 바람결에도 반응을 보인다. 여름이 오자 뻐꾸기 소리를 듣고는 눈이 뒤집혀서 발광을 했다.

어떤 말이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버릇은 있다. 그래서 초여름에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참지 못한다. 문제는 말썽꾸러기의 향수병이 유별나게 심하다는 것인데, 염소를 떼로 주고 바

꿔왔더라도 말이 적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어느 날 뻐꾸기가 우는 동안 넋을 놓고 하늘만 보더니 정오가 지나서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다. 말이 도망갈 곳은 제 고향밖에 없다. 그 먼 곳까지 가보니 게르도 없는 자리에 앉아 혼자 우두커니 하늘을 보고 서 있었다. 돌아가자고 얼러도 꼼짝을 하지 않는다. 굶고 살더라도 고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놓아두고 올까도 생각했다. 한데, 말을 키운 여자가 어디 가고 없었다. 남자는 앉은뱅이라 말이 있는 게 오히려 짐이라는 것이다. 빌어먹을 망아지가 성깔이 고약하려거든 친정이라도 잘 만날 일이지, 두고 가면 밤마다 늑대와 싸우느라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하여, 잿빛 말을 반은 달래고 반은 혼내어 데려왔는데, 줄곧 향수병을 못 버려서 풀도 뜯지 않고 날마다 고향 쪽만 본다. 위로하는 노래도 들려주고 마두금 연주도 해주었지만 한겨울 추위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 김형수, 『조드-가난한 성자들』(자과모음, 2012), 134~136쪽.

박형서, 『새벽의 나나』 중에서

여행은 우리를 저만치 돌려세운다. 지루하고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풍토, 이국적인 표정과 부딪치다 보면 가슴속에선 짜릿한 폭음과 함께 불꽃이 터진다. 하지만 거기에 감탄하는 건 우리가 다름 아닌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광은 삶에 너무 깊이 끼어들지 않기로, 개연성 없는 농담처럼 유쾌하기로, 후에 돌아갈 남루한 진짜 생활을 위하여 사진첩의 얇은 낭만에 머물러주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다.

그게 원칙이긴 한데, 가끔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돈므앙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달리길 삼십여 분—낯익은 거리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레오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훨씬 안 좋았다.

소이 식스틴은 천천히 무너지는 중이었다. 사방에 균열이 생겼고 그늘이 독약처럼 짙어졌다. 우기의 막바지라 여행자들이 슬슬 몰려드는 시기지만 그곳은 수쿰빗 대로의 활기에서 소외된 채 몰락해가고 있었다. 레오가 떠난 이듬해 화재가 났다는 '한 줄 의자'에는 아직도 군데군데 검댕이 보였다. 주민들은 빗줄기가 그 슬픈 흔적을 씻어주길 바랐으나, 열대의 정열적인 폭우는 아예 건물 자체를 지반 아래로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 바람에 콘크리트 벽면이 뒤틀리고 쇠창살로 된 문도 덩달아 아귀가 맞지 않았다.

습지를 품은 공터에 불과하던 랏차다피섹 대로 부근에 신축 중인 초고층 호텔로 인해 소이 식스틴을 대표하는 건물인 '한 줄 의자'의 초라함은 더욱 두드러졌다. 레오는 방충망에 난 작은 구멍인 '소이 식스틴의 눈'을 통해 이미 뼈대가 완성되어 레미콘 차량을 기다리는 거대한 호텔을 노려보았다. 맨 위층엔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천장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 날씨에 따라 열리고 닫힐 거라고 했다. 소이 식스틴의 주민들은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몇 대나 설치될 것이며 완공 후에 어떤 이름을 갖게 될 것인지, 디럭스 룸의 가격은 얼마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 주책없이 떠들고 다녔다. 거리의 삶과 환경을 상대적으로 비루하게 만들어줄 호텔의 완성도는 소이 식스틴에서 제일가는 화젯거리였다. 점차 위용을 갖추어가는 건물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표정은 강간범의 씨앗이 자라나는 배를 자랑스럽게 어루만지는 철없는 계집아이 같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레오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고작해야 사 년이 지났을 뿐인데 소이 식스틴 전체가 말라죽은 덩굴로 뒤덮여버린 느낌이었다. 사람들도, 거리와 건물도, 풍경과 색채도, 공기도 팍삭 늙었다. 축제의 불꽃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그 거리가 구면인 까닭만은 아니었다. 레오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기억하는 모습과 예상했던 모습과 실제로 놓여 있는 모습을 비교해보았다. 홍차를 가리키며 커피를 주문했는데 숭늉이 나온 기분이었다.

멀리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차츰 또렷해지는가 싶더니, 욘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다짜고짜 플로이 앞에 넙죽 엎드려 잃어버렸다고 울부짖었다. 무엇을? 돈을. 누구 돈을? 야바랑 얼음 사오라고 준 플로이의 돈을.

플로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다가, 말없이 시선을 돌렸다. 욘이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고민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원래대로 돌이킬 방법을 찾으려 진지하게 고민해봤자 욘이 저지른 실수는 언제나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깔끔했고, 화를 내도 그

멍청한 행동거지는 절대 고쳐지지 않았다. 욘은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지만 어떻게 매번 용서하란 말인가? 눈에서는 눈물이, 입에서는 침이,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 얼굴 전체가 번들거리는 점액질로 범벅이 되었다. 손가락은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느라 벌레처럼 꼼지락댔다. 그러나 텔레비전만 응시하는 플로이의 표정은 고드름이 돋을 정도로 싸늘했다.

제 풀에 지친 욘이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플로이도 이제 나한테 화가 났고, 나는 집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플로이는 저렇게 성질을 다 내고, 아, 그 염병할 돈을 어디다 뒀더라…… 그런데 넌 누구야?"

"욘, 잘 지냈어? 나 조금 전에 왔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레오가 두 손 모아 와이를 했다. 욘이 쭈글쭈글하게 접힌 얼굴의 주름 고랑을 훔쳐내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 플로이 덕분에 매실 마시고 피우고 떠들면서 잘 지내긴 했다만……" 이어 레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런데 넌 누구야?"

-박형서, 『새벽의 나나』(문학과지성사, 2010), 173~176쪽.

오수연, 「황금지붕」 중에서

나는 소스라치며 깨어났다. 차가운 밤바람에 천막이 돛처럼 펄럭거리고 석유 등잔이 꺼질 듯 가물거렸다. 그리고 천막 안에는 인원이 한 명 불어났다. 스물한 살짜리 곁에서 맨 바닥에 잠이 든 촌장. 그는 집에 갔다가도 마을 외곽 천막집에서 잠든 우리가 걱정되어 돌아왔던 것이다. 사나운 점령민들이 습격해 온다면 가장 많이 맞을 사람은 그이고, 이미 두드려 맞아 팔이 부러진 적이 있으며 다리에도 총알이 뚫고 나간 상처가 있건만. 나는 도로 누웠으나 다시 잠이 들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한동안 난민촌 숙소에 머물렀고 거울 앞에서 긴 머리를 빗어내리기도 했던 동료는, 삼 주일 전쯤에 다른 도시에서 점령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 우리가 점령국의 수도 광장에서 추도식 겸 그의 죽음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할 때, 길 맞은편 호텔에서 새파란 종업원들이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했다. 그들은 손뼉 치며 장단 맞춰 외쳤다. 너희들은, 미쳤어! 네 나나로, 돌아가! 그때 나는 죽은 동료의 비행기표를 떠올렸다. 그는 소지품을 잘 간수하지 않아 난민촌 숙소에 머무는 동안 그의 지갑과 비행기표가 방에 굴러다녔다. 그의 주검은 고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나, 그 왕복 비행기표의 돌아가는 표는 끝내 사용되지 못했다. 죽음은 국경을 넘는데, 삶은 넘지 못했다. 우리가 모인 광장에서 천진난만한 젊은이들이 몰려나온 맞은편 호텔 앞까지, 걸어서 길을 건널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죽음이 흘렀다.

멀리서부터 바람이 몰려왔다. 천장의 엉성한 파이프들이 심하게 흔들려 배를 타고 어디론가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있는 듯했다. 내 등 밑의 땅은 지상에 붙어 있지 않은 땅이다. 내가 앞으로도 주말에 한두 번은 더 올 이 마을은 공식적으로는 이미 없어졌다. 점령군의 지도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불법체류자, 아니 합법적으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으되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수인이자 유랑민들이다. 내가 주중에 머무르는 난민촌도 마찬가지다. 점령군의 서류에서는 난민촌 전체가 군사작전구역으로서 철거와 소개 대상이다. 여기는 지상에 없는 장소다. 그렇다면 몇 주 후에 내가 돌아갈 고향은 어디에 있나. 내 고향은 여기의 동쪽이어야 하지만, 여기가 세상 어느 지점이 아닌데 거기인들 어느 방향과 거리에 위치할 수 있겠나. 땅이 제각기 성스럽고 불가피하며 정당한 이유로 갈갈이 찢겨, 파편들이 제각각 정처 없이 떠간다. 특히 작은 한 조각, 나의 고향이 멀어져간다.

등잔 불빛이 미치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어슴푸레한 그림자 하나 일어섰다. 지구를 돌게 하고 해와 달을 그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한 신은 인간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 있느냐. 그것이 신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조그만 양탄자를 발 앞에 깔아놓고 어슴푸레한 그림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고개를 돌렸다. 기도할 때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옆 사람을 쳐다보기 위해서다. 그림자는 양손을 엇갈려 팔꿈치를 건드리고, 두 팔을 내려 양 무릎을 짚은 다음 엎드려 바닥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른쪽 사람의 왼쪽, 왼쪽 사람의 오른쪽. 그림자는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렸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도 쉽게 깨지고 으스러지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나이다. 그림자는 세 번째로 일어났다가 엎드렸다.

아시아에도 그 반대편에도, 동서남북 어디에도 없는 황금 지붕을 향하여. 제각각 튕겨나가는 제각기 성스러운 파편들을 도로 끌어당겨줄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지상에 있지 않은 황금 지

붕, 지표면 어디에서도 똑같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내부의 초점을 향하여. 지구를 다시 동그랗게 말아 부피와 깊이가 생기게 해줄 구심력을 위하여. 밖이 아니라 안, 위가 아니라 아래, 보이지 않고 닿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영원히 빛나는 황금 지붕을 향하여. 왼쪽의 오른쪽, 오른쪽의 왼쪽, 앞의 뒤, 뒤의 앞을 다 같은 곳으로 묶어주는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 오수연, 『황금지붕』(실천문학, 2007), 249~252쪽.

전성태, 「중국산 폭죽」 중에서

"저 새끼를 때려주세요."

"뭐라고?"

"저 새끼를 한 대만 때려주세요. 그날 아저씨가 말리는 바람에 나는 때리지 못했어요. 공평하게 한 대만 때려주세요."

목사는 입을 벌린 채 한발 물러났다. 그러자 녀석은 몸을 휙 돌리더니 걸어가버렸다. 목사는 그 아이를 쫓아가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할아 아이에게 다가갔다.

"너희들 지난번에 왜 싸웠느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예요."

할아 아이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새끼가 혼자 돈을 다 먹으려 해서 그랬다고요."

대충 짐작이 갔다. 목사는 부랴트 아이가 걸어간 길을 바라보았다. 어느 골목으로 사라졌는지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그 새끼는 여러번 그랬어요. 제 아픈 동생을 봐서 몇 번 봐줬더니……"

"아무튼 너희는 친구니까 이제 화해해라."

목사는 빵 두 개를 챙겨서 녀석에게 안겼다.

"친구를 찾아서 전해줘."

그러안은 빵을 내려다보며 할아 아이가 말했다.

"걔 동생은 죽어쓴데요. 며칠 전에 죽었다고요."

녀석이 빵 하나를 되돌려줄 셈으로 내밀었는데 목사는 그저 맥없이 서서 부랴트 아이가 사라진 거리를 바라보았다.

이튿날 할아 아이가 목사 집을 찾아왔다.

"폐품을 가지러 왔어요."

녀석은 눈두덩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목사는 그 아이 어깨 너머를 건너다보았다. 건물 밖에 부랴트 아이가 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서 있었다. 녀석은 목사와 눈이 마주치자 성끗 웃어 보였다.

"아저씨, 전에 주시려다가 만 오백 투그릭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요."

할아 아이가 폐품묶음을 받아들고 서서 말을 이었다. 목사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건넸다.

"어디에 쓸 거냐?"

하고 물어놓고 그는 후회했다. 그러나 아이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폭죽을 살 거예요."

목사는 자신의 선의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다. 녀석도 낌새를 챘는지 급히 몸을 돌렸다.

약속대로 사흘 뒤에 녀석들이 목사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라트 아이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표정이 꽤 밝아 보였다. 목사는 교회에서 나오는 폐품까지 모아다가 둔 것을 내놓았다.

"아저씨, 마지막날 밤에 뭐 하세요?"

"그믐밤 말이냐? 가족들하고 텔레비전으로 해가 바뀌는 걸 볼 게다."

"그럼, 그날밤 열두시에 저기를 보세요."

할아 아이가 인민궁전 광장을 가리켰다.

(중략)

할아 아이가 말한 그 시간이 가까워지자 목사는 창가에 섰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인민궁전 광장으로 새카맣게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족히 사오백 명은 되어 보였다. 멀어서 입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저들이 모두 부랑아들이라고 생각하자 목사는 오싹 소름마저 끼치는 느낌이었다. 그는 폭동이라도 일어나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의 집앞으로도 부랑아로 보이는 아이들 여러명이 지나갔다. 아이들은 계속 몰려드는 것 같았다. 광장이 어느새 아이들로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층층이 원을 그리며 중심을 향해 서 있었다.

거실의 벽시계가 열두시를 알리는 종을 쳤다.

멀리 광장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얀 불꽃 하나가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삼십 미터 상공에서 콩볶는 소리를 내며 불꽃이 작렬했다. 폭죽이 연달아 터지며 하늘을 수놓았다.

"거리에서 죽은 친구들을 위해 저런 짓을 한답니다."

목사 곁에 서 있던 암가가 말했다. 또다른 집사가 덧붙였다.

"폭죽 하나에 영혼이 하나라죠?"

- 전성태, 『늑대』(창비, 2009), 174~177쪽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중에서

로가 그토록 열심히 거리 이름을 적어내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만이 자신이 이곳 브뤼셀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고 여겼던 것이 아닐까. 그럴 수 있다. 이 거리에서 로는 그 누구와도 가벼운 인사조차 나눈 적이 없다. 키 작고 왜소한 동양인 남자는 눈에 쉽게 띄긴 했어도 그가 브뤼셀까지 오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거나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의미가 없어진 그의 국적이나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 그가 한 인간으로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 도시는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는 길을 걷다가도 간혹 자신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지 않았을까. 언뜻언뜻 세상을 반사하는 쇼윈도우 앞에서는 여러번 걸음을 멈추었을지 모르겠다. 양 발다닥에 집으로 돌아가는 지도가 그려져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 귀가 얼얼할 정도의 소음을 내며 달려가는 긴급후송 차량들,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전갈을 입에 물고 수신인을 향해 날아가는 듯한 몇 마리의 비둘기들, 목적지가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 그리고 그 위에 겹쳐 얼비치는 자신의 희미한 씰루엣, 흡사 유령 같은……

로가 가장 자주 간 곳은 브뤼셀의 중심가이자 관광지인 그랑 쁠라스였다. 아니,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결국엔 그랑 쁠라스로 이어지는 길을 택했고 저녁 무렵 그곳을 경유하여 호스텔로 돌아갔다. 누브 거리가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으로 로를 놀라게 했다면, 그랑 쁠라스를 비롯한 중심가는 역사와 기품이 느껴지는 건물들로 로를 압도했다. 고풍스러운 건물의 외관, 기둥이나 지붕 아래 새겨진 섬세하고 신비로운 조각, 누군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줄 것 같은 아름다운 테라스. 어둠이 내리면 온 도시에 느리게 조명이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로는 낮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크고작은 나방들이 그제야 등에 불을 밝히고 거리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로의 눈에는 아름답지 않은 건물이 없었다. 그러나 낯선 세계의 꿈결 같은 공간은 이방인 로의 눈 속에서 그리 오래 빛나지는 못했다. 추웠고 자주 허기졌기 때문이다. 로는 추위와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걸어야 했다.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새겨지는 견디기 힘든 추위는 로는 끈질기게 고문하곤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아무 상점에나 들어가 손님인 척 물건들을 구경하며 추위를 달랬다. 로에게 다가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 점원은 한 명도 없었다.

뵈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씨즌을 맞아 통나무집 모양의 작은 간이 상점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다. 하얀색 솜과 빨간색 알전구로 장식한 상점들은 요정이 살면 딱 알맞을 것 같은 작은 싸이즈다. 스빠게띠, 바비큐, 팬케이크, 쏘씨지, 샌드위치, 뜨거운 와인 등을 파는 통나무집 상점을 근처는 접시 하나를 들고 선 채로 음식을 먹거나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도 북적인다. 시장하냐고 박이 묻는다. 나는 배는 고프지 않지만 거리에 서서 음식을 먹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짐짓 장난스럽게 대꾸한다. 우리는 팬케이크를 파는 상점 앞으로 걸어가 5유로짜리 치즈 팬케이크 두 개를 주문한다. 플라스틱 포크로 팬케이크를 잘라 먹다가 어느 순간 박과 눈이 마주친다. 반백의 머리칼에도, 두꺼운 안경알과 잿빛의 트렌치코트에도 하얀색 눈이 묻어 있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눈 맞은 박을 보며 내가 웃자 두꺼운 안경알 속에 안전하게 숨어 있던 그 두 눈이 크게 끔벅인다.

–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창비, 2011), 68~70쪽.

한유주, 「베를린 · 북극 · 꿈」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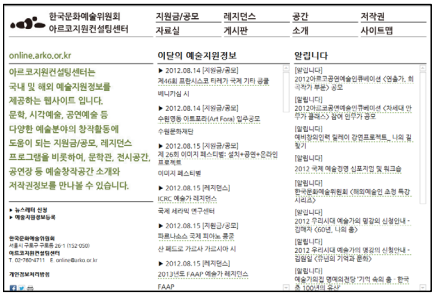
나는 부끄러웠다. 텔레비전을 켜면 고래들이 자살한다. 숲은 쓸쓸했고 지하보도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칼 대신 담배를 꺼냈다. 담배가 흰 임김을 내뿜었다. 추위와 어둠이 동시에 지하보도 안으로 고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천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잠시 지하보도 안에 머무른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건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이 펴든 책에서 훔쳐본 말이었다. 내가 그 다음 문장을 읽으려고 했을 때 그는 책을 야멸스레 덮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나는 『기도와 삶』이라는 책의 제목을 빠르게 곁눈질한다. 잘못된 가정과 올바른 오해와 잘못된 희망이 나를 그르쳤다. 나는 부끄러웠다. 지구상에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야구를 아는 종족이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야구를 상상하게 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지금, 지구상에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까? 동독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소유즈 29호 안에서 집시들의 카드를 섞는다. "곧 추락합니다." 과학사 박물관 안에는 제1, 2차 세계 대전에 쓰였던 군용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조종사들이 고글 달린 헬멧을 쓰고 첼발로를 연주한다. 첼발로를 연주하며 집시들의 카드를 섞는다.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뒤집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정정하고, 다시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공기 밖으로 내버리면서 제 영혼들을 버린다. 오늘 우리는 베를린 전승기념탑 꼭대기를 딛고 선 천사의 날개를 본다. 우리는 두 눈을 의심한다. 천사의 날개는 가슴이 아니라 등에서부터 돋아나 있다. 아득한 탑의 높이를 둘러싸고 바람이 분다. 언제나 잘못 전해진 이야기들이 문제였다. 우리는 눈을 크게 깜박인다.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눈물이 배어나온다. 우리는 총알 자국으로 뒤덮인 전승기념탑을 쓰다듬는다. 나는 부끄러웠다. 네가 카메라로 총알 자국들을 찍었다. 나는 대리석이 깎여나간 그 자리에 내 손가락을 묻어본다. 시리다. 너는 천사를 올려다본다. 어둠이 완연한 지금 우리는 천사가 웃는지 우는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를 알 수 없다. 누군가가 다가온다. 그는 강한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이제 버스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를 보고 웃었다. 깊숙이 눌러쓴 모자 아래로 눈동자가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동전 가진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는 성호를 긋고는 침을 뱉으며 원형 도로를 위태로이 가로질러 숲속으로 사라진다. "마리, 제인이 말해요. 일요일 아침, 우리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들어요. 마리, 제인은 검고 검은 블라우스를 벗고 검고 검은 치마를 입어요. 일요일 아침, 우리는 콜라를 마셔요. 나에게 하얗고 하얀 알약을 준 것은 제인, 그리고 마리였어요." 나는 형광 안료로 쓰인 기밀 사랑들을 생각했다. 현장, 폐허, 공격……을 주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히 살아남는 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오늘날 죽음은 전방위적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면 우리는 없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쉽게 죽는다. 베를린 전승기념탑의 천사는 등에 금빛 날개를 달고 있다. 천사는 곧 뛰어내릴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저 두 개의 날개가 천사의 무게를 나누어 가진다. 베를린에 오기 전, 파리에서, 나는 옆방 여자의 여권을 훔친다. 그 여자가 일본인이었다는 것은 여권을 확인한 뒤였다. 나는 훔친 여권을 감춘다. 우리는 중국인, 아랍인, 한국인, 나중에는 프랑스인, 독일인, 룩셈부르크인, 그리스인, 알제리인, 파푸아뉴기니인, 도미니카인, 말레이시아인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여권들을 훔친다.

그렇게 훔쳐낸 여권들은 잠시 우리의 배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나 하수구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우리는 미친 사람들처럼 베를린 전승기념탑의 총알 자국들을 쓰다듬는다. 오래되지 않은 옛날 전승기념탑을 둘러싸고 격전이 벌어졌고 누군가는 승리했으며 누군가는 패배했고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죽었다. 오늘 우리는 천사의 무게를 느낀다. 이제 도피는 끝났다. 우리는 살아남거나 죽는다.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 우리는 추위와 새벽과 총성을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유주, 「베를린 · 북극 · 꿈」, 『달로』(문학과지성사, 2006, 136~139쪽.

예술창작에 필요한 정보가 한곳에!

http://onlie.arko.or.kr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해외의 지원금, 시상,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국의 문학관, 전시공간, 공연장 등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소개와 저작권 관련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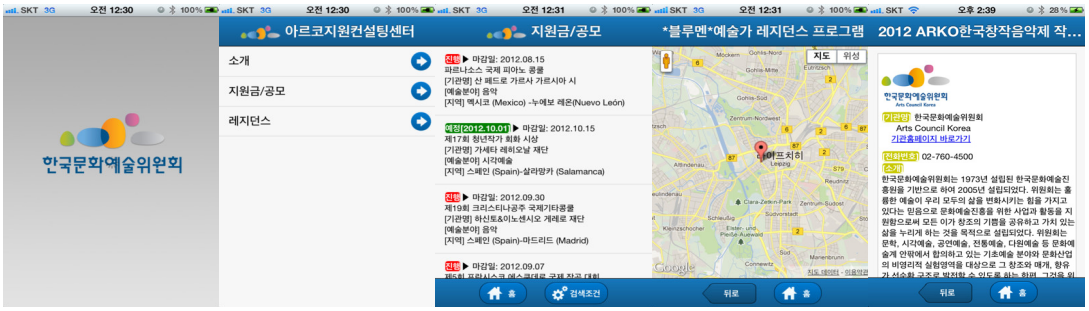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는 연간 사이트 방문자 수가 52만명이상, 보유정보 건수가 14만 여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정보 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의 예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홈페이지 http://online.arko.or.kr
-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 http://twr.kr/T75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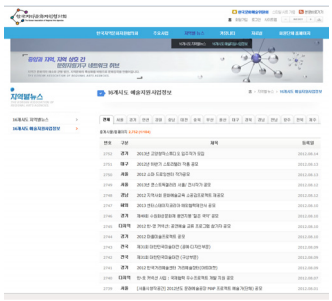
- 앱스토어(ISO) http://twr.kr/JOlQ



- 정보제공 사이트(online.arko.or.kr 정보와 실시간 연동되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예술인력관리시스템
http://arkoayaf.or.kr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http://www.karaa.kr/

정보제공을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담당자(online@arko.or.kr)에게 문의 바랍니다.



韓國文化藝術委員會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152-050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26-1)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 도보 3분)
TEL : 02-**760-4500, 4600** FAX : 02-**760-4700**